서상돈 아우구스티노

장면 요한

최정숙 베아트리체

김익진 프란치스코

김홍섭 바오로

불꽃이 향기가 되어

20세기를 살아간 다섯 사람 이야기

■ 김익진 프란치스코 교육가, 사상가, 문필가. 《동서의 피안》, 《내심낙원》 등 많은 번역서와 기고문을 남겼다. ■ 김홍섭 바오로 법관이자 가톨릭 사상가. 청렴한 생활, 신앙과 양심에 따른 바른 재판으로 '사도 법관'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 최정숙 베아트리체 제주가 낳은 독립운동가이자 교육가. 평생 고향 제주의 교육을 위해 몸 바쳤으며 의원을 열어 가난한 이들의 진료에도 힘썼다. ■ 서상돈 아우구스티노 대구대목구 초기의 대표적 평신도. 일생을 교회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 노력했고 국채보상운동 등 나라의 재건과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 장면 요한 정치가이자 교육가, 문필가. 국가의 발전에 기여했다. 제1공화국 국무총리와 부통령, 제2공화국 국무총리를 지냈을 뿐 아니라 교회 발전에도 이바지했다.

책값: 13,000원 엮은이: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펴낸곳: 도서출판 으뜸사랑 판매처: 가톨릭출판사 직영서점, 인터넷서점(예스24, 인터파크, 영풍 등)

2016년 겨울 계간 54호 평신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2016년 겨울
계간 54호

평신도

인사 권길중 한국평협 회장 **만남** 안상덕 마산평협 회장 • 광주 세나뚜스 **나눔** 평신도 연구 • 한국평협 심포지엄2 **이야기** 북한생활 체험기3 **배움** 인문학 강좌 • 수도회 영성 • 영화 속 '인간과 세상' • 영화음악 세상 • 평신도 양서 **축시** 답게 살기 위하여 **휴식** 원주교구 용소막본당 황둔공소 **소식** 교구평협 • 회원단체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평신도

2016년 겨울
계간 54호

발행인 권길중 바오로
담당사제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발행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편집장 배봉한 세례자 요한
편집위원 권지영 데레사, 김문태 힐라리오, 나권일 토마스, 류주희 클로틸다, 명백훈 프란치스코, 서상덕 스테파노, 오완수 바오로 (가나다 순)
제호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디자인 · 인쇄 가톨릭출판사

사진/ 갈매못성지 – 유동희 바오로

1866년 병인박해 때 500여 명이 순교한 갈매못성지에 해가 저문다. 신원이 밝혀진 10명 중 5명이 시성된 아름다운 바닷가를 걷는다.
성지 지킴이 신부는 말한다.
"눈으로 보면 관광이고 마음으로 보면 순례다."

차례

인사
02 회장 인사말 / 권길중

만남
04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 나권일
08 평신도가 뛴다 / 권지영

나눔
12 평신도 연구/ 김 율리아
14 한국평협 심포지엄2 / 정희완

이야기
28 북한생활 체험기3 / 박정일

배움
31 인문학 강좌 / 김문태
34 수도회 영성 / 한국 클럽 양성 담당자
39 영화 속 '인간과 세상' / 이대현
43 영화음악 세상 / 정성엽
46 평신도 양서 / 류주희

축시
48 답게 살기 위하여 / 이해인

휴식
50 원주교구 용소막본당 황순공소 / 김정은

소식
51 교구평협 · 회원단체

인사

회장 인사말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

권길중 바오로 한국 · 서울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우리가 찾아나서야 할 변방은 참으로 많고도 넓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겨울이 오면
특히 북한의 주민들의 삶이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엊그제 주일은 아내가 예쁘게 만든 진보라색 대림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간절함과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자는 기도를 바치면서입니다.

어린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이 시기가 되면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설렘 속에서 한 해 동안의 삶을 셈 바치면서 총고해를 준비하게 됩니다.

나에게 섭섭함을 당하고도 참고 사는 가족들은 없는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너무 바쁘게 사는 모습 때문에 할 말을 못하고 지내는 자녀는 없는지, 회의와 만남 등에서 내가 한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은 형제는 없는지, 정의라는 이름으로 형제에게 손해를 강요한 일은 없는지를 살피고 용서를 청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들에게도 확실하게 말해 줌으로써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는 사랑도 이 시기에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대림 첫 주 월요일 산타 마르타 미사 강론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시다."라는 주제로 강론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형제적 자선을 실천하고 기쁘게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모님과 세례자 요한, 목동들, 동방박사 등 모두가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여정을 떠난 것처럼 우리들도 형제적 자선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황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여정보다 먼저 우리를 만나러 손수 오신다고도 강조하십니다.

마태오 복음 18장에서는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면 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더 이상 우리만 있게 놓아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또 다른 형제가 자기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와 함께해 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형제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강력한 형제적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매 순간 성탄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할 변방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나라를 찾아주셨을 때, 저는 평신도를 대표해서 교황님께 드리는 환영사에서 변방에 나갈 것을 약속드렸던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와 젊은이들을 특히 사랑하시는 교황님, 저희는 교황님께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얼마나 자유로우신지, 또한 그러한 자유로 변방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심으로써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음을 봅니다. 저희도 교황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이기심으로 얽어맨 사슬을 끊고 잃어버린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찾아 변방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할 변방은 가난하고, 병든 형제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댈 곳조차 없는 가장 작은 형제들(마태 25,40)이며, 교회를 떠난 형제들, 꿈을 잃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입니다. 휴전선 북쪽에서 굶주리고 박해를 받으면서 저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북한 동포들, 하느님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아시아의 백성들 또한 저희가 찾아나서야 할 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찾아나서야 할 변방은 참으로 많고도 넓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겨울이 오면 특히 북한의 주민들의 삶이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인권이나 믿을 자유는 고사하고 난방조차 할 수 없는 주거 속에서 방한복도 갖추지 못한 채 떨어야 할 형제들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 형제들을 위한 연탄배달도 할 수 없고 김장 나누기도 불가능합니다. 그분들을 직접 도울 방도가 모두 막힌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서울대교구 민화위와 평협이 함께 전개하고 있는 '내 마음의 북녘본당 갖기' 기도운동도 그중의 한 가지입니다. 저는 가장 북변에 위치한 회령본당을 내 마음의 본당으로 정하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와 프란치스코 성인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바칩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시간에 나와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요 기쁨입니다. 복음에서 그분을 뵙는 기쁨, 미사전례를 통해서 성체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영할 수 있는 기쁨, 우리들이 서로 사랑해서 '우리 가운데' 그분께서 강생하셨을 때의 가득한 행복과 기쁨 등 모두 우리의 희망이며 기쁨입니다. 여기에 형제를 위하여 내 것을 내줄 수 있을 때 파도처럼 밀려오는 기쁨까지 단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맛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이사 35,4).

만남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안상덕 다니엘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대담 · 정리
나권일 편집위원

한국평협 2016년 추계 상임위원회가 지난 11월 25~26일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개최됐다. 마산평협의 봉사자들과 함께 1박 2일 동안 행사를 진행하면서 '준비'와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고 나눔을 실천해 주신 안상덕 다니엘 회장(59)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안상덕 다니엘 회장. 솔선수범하면서도 겸손한 그에게서 '신앙인답게' 살고 있는 평신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던 것은 큰 기쁨이었다.

한반도의 남동쪽 마산합포구 구산면 난포리. 봉화산 자락의 땅끝 언덕배기에 마산교구 신앙교육의 못자리인 마산가톨릭교육관이 자리 잡고 있다. 전망대에 올라 눈을 들면 왼쪽으로는 멀리 부산 신항만이, 정면으로는 거제도와 한산도가, 오른쪽으로는 통영의 넉넉한 바다가 바라다 보일 정도로 경관이 좋다. 크고 작은 섬들이 겹겹이 산맥을 이루듯 앞서거니 뒤서거니 눈앞에 이웃하고 있는 풍광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상쾌하고 넉넉해진다.

안상덕 회장은 쉼과 묵상과 기도가 어우러지는 이곳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지난 이틀 동안 전국에서 찾아든 형제자매들을 맞이하는 친절한 봉사자이자 주인장으로서 작은 실수나 잡음 하나 없이 행사와 프로그램을 솜씨 좋게 이끌었다. 물 흐르듯이 조용하면서도 완벽하게 일을 진행해 가는 탁월한 능력을 보면서 어떤 생각과 품성으로 살아온 분일까 궁금해졌다. 바쁜 행사 틈틈이 안상덕 회장과 말씀을 나누었다.

신석복 · 구한선 · 윤봉문 · 박대식 · 정찬문 등 마산교구 순교복자 5위를 기리는 홍보물.

'마산교구는 교세가 작고 신자수도 많지 않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참 모범적으로 꾸려가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산교구는 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초대 교구장으로 계셨던 소박하고 아름다운 교구입니다. 맑고 푸른 마산만과 넉넉한 지리산, 섬진강을 교구 안에 품고 있지요. 현재 마산 · 창원 · 진주 · 거제 등 4개 지구 73개 본당에 모두 18만 명의 신자들이 배기현 주교님의 인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있습니다. 우리 교구의 복음화율을 이야기할 때면 부끄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교세가 약하고 지역의 어려운 여건 때문에 인구 대비 복음화율은 7%, 주일 미사참례 인원은 18%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평협에서는 '비전 1030 운동' 즉 복음화율 10%, 주일 미사 참여율 3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적극 매진해 오고 있습니다."

중제/ '비전 1030 복음화 운동' 진행 중

마산교구 평협에 대한 간략한 소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본당 대표와 교구 단체 대표, 전문성이 있는 위촉위원 등 임원 33명이 마산교구 평협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위원들이 '평협人'으로서 적극 소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부르심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소명의식과 본당과 단체 모두가 참여하여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신도운동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로를 '평협人'으로 부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기현 주교님께서 평신도가 교구 행사와 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많은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평협 담당사제인 황병석 파스칼 신부님 지도 아래 당면한 여러 교구 행사를 교구장님의 사목지표에 맞추어 완벽하게 준비하고 실행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안상덕 회장은 행사 진행의 '달인' 소리를 듣기에 충분했다. 한국평협 상임위원들을 대상으로 마산평협을 소개할 때도 직접 작성하고 준비한 그래픽과 시청각 영상을 활용한 PPT 자료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진행해 부러움을 샀다. 마산평협에서 오랫동안 기획위원장을 역임한 능력과 솜씨가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발휘된 것이었다. 지난해까지 마산평협 사무처장을 거쳐 수석부회장으로 일하다 지난 1월 30일 마산평협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했다. 특히 올해 4월, 마산 평협 담당사제인 배기현 신부가 마산교구 주교로 서품되는 경사를 맞아 6월에 주교 착좌식을 준비하느라 정성을 기울였다는 후문이다.

한국평협 상임위원들 앞에 선 마산교구 평협 간부들. 사전 답사를 통해 참석자들의 동선을 미리 체크하는 등 철저한 준비와 섬세한 배려가 빛났다.

평협 회장을 맡은 이후 주로 어떤 활동을 해 오셨는지, 주력했던 사업과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큰 행사는 역시 6월 8일 '제5대 마산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 착좌식'을 전국의 주교단과 5,500명의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산체육관에서 성공적으로 마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덕망이 있으시고 교구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계시는 새 주교님을 보내주셨기에 저희는, '주교님께서 지고 가실 무거운 십자가를, 부족하지만 저희 18만 교구민들이 시몬이 되어 함께 지고 따르겠습니다.'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0월 30일에는 '교구설정 50주년 감사미사'를 진주체육관에서 8,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축제로 잘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50주년을 기념하는 순교자현양 칸타타, 교구 울뜨레야, 교구 연도대회 등 여러 행사도 잘 치렀습니다. 여기에 이미 계획돼 있던 마산평협 회장단 연수회, 자매결연 45주년 기념행사로 진행된 오스트리아 그라츠 교구 사절단의 마산 방문, 진해 웅천왜성에서 개최한 산상미사 등 올해는 크고 작은 여러 행

마산교구가 올해 교구 설정 50주년 특별 강연으로 개최한 '순교자의 딸 유섬이' 특강. 내년 9월에는 '순교자의 딸 유섬이'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사가 많았습니다."

평신도주일에 전 신자에게 떡 나누는 감동 맛봐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었는지요?

"얼마 전 제49회 평신도주일(11월 13일)에 교구의 모든 신자들에게 떡 나누기 운동을 실천한 일입니다.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큰 지원이 필요하여 기도와 고민만 반복하는 중에 은인이 나타나 떡 나누기에 필요한 3,000만 원을 조건 없이 기탁해 주셨습니다. 제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웠어요." (안상덕 회장은 전국의 상임위원들에게 이 대목을 소개할 때도 그때의 감동을 잊지 못하는 듯 한동안 울컥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번에 평협 추계 상임위원회를 준비한 안 회장과 한일문 수석부회장, 김정하 기획사무처장, 권춘옥 총무국장 등 마산평협 간부들은 사전 답사를 통해 교통편과 참석자들의 이동 시간 등을 분 단위까지 계산하며 동선을 미리 체크하는 등 철저한 준비로 행사를 진행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강의실과 식당, 사랑방, 숙소 등 참석자들이 머무는 공간마다 성서 말씀과 묵상에 좋은 글귀를 적어놓는 등 '신앙인답게' 섬세한 배려가 특히 빛났다. 깊은 정성의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한 상임위원들은 너도 나도 마산평협에 고마움을 표하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행사 준비에 꼼꼼함과 배려가 돋보인다는 의견들입니다. 회장으로 봉사하면서 겪는 어려움들도 한둘이 아닐 텐데요?

"마산의 평협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도와주시니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저 자신을 극복하고 활동의지를 담금질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기보다는 직책을 피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교구 레지아 단장 임기를 마치면서는 속으로 가족과 함께 여행이나 하고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때문에 교구 평협 사무처장과 수석부회장을 수행할 때에도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그 죄값으로 회장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웃음)

그럼에도 마산 평협인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심어주셔서 크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구단체장님들과 본당 회장님들의 그 헌신적인 참여와 관심에 보답한다는 생각으로 주어진 소임을 실천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탈하고 겸손하게 한국평협 상임위원들을 맞이하는 안상덕 회장.

레지오는 삶의 기도와 활동의 버팀목

안상덕 회장은 마산 구암동이 본당으로 교구 레지아 단장으로 오랫동안 봉사했다. 소탈하면서도 늘 웃는 표정과 친절이 몸에 배여 있어 마산평협에서 활동하는 분에게 여쭈었더니 자동차 딜러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친화력과 겸손함, 소통 능력이 대단한 분이라고 했다. 기획 능력도 뛰어나고 특히 임직원 교육, 컨설팅 분야에서 발군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

회장님께서 신앙을 갖게 된 이야기, 하느님을 만난 체험도 듣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 친구의 권유로 성당을 찾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정작 세상을 떠났고, 그 몫까지 열심히 한다는 생각으로 영세 후 바로 레지오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레지오는 제 삶의 기도와 활동의 버팀목이 되고 있고요. 뒤늦게 사제의 꿈을 꾸면서 교회의 봉사활동과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제의 꿈은 잃어버렸지만, 다양한 교육과 피정, 봉사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어렴풋하게라도 하느님을 뵐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꾼'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왠지 성실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큰 행사들이 제 옆에 있었습니다. 교구 레지아 단장 재임 중에는 레지오 50주년, 교구 평협 임원 때는 교구설정 40주년 행사, 마산교구 복자탄생 경축대회, 올해 마산평협 회장을 맡고 나서는 교구설정 50주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참 일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웃음)"

힘드실 때도 많으셨을 텐데요.

"교회 일 때문에 때때로 사회적으로 욕심을 포기할 때에는 속상하고 아쉬울 때도 있었지만 먼저 교회활동을 우선하는 성격인지라 지금까지도 교회활동을 쉬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느님의 뜻일 수도 있고 하느님을 만난 체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활동에 빠져서 신앙심이 결핍될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잘 지켜주시겠지요! 또한 제 가족이 모두 건강한 것도 감사한 일이고, 어머니를 비롯하여 동생가족들과 사돈과 사위까지도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음은 제게는 은총이며 하느님 체험이고 참 행복입니다. 교구장님의 사목 표어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를 늘 되새기고 실천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마산가톨릭교육관 건물. 건축대상을 받았을 정도로 아름다워 휴양지의 고급 리조트를 방불케 한다.

이번 행사를 마치면서 안상덕 회장은 "그저 마리아를 맞이하는 엘리사벳의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며 참석자들에게 겸손해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단순히 이번 행사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모든 일들을 그런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살아온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늘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사람, 솔선수범하면서도 겸손한 안상덕 다니엘 회장에게서 '신앙인답게' 살고 있는 평신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던 것은 큰 기쁨이었다.

평신도가 뛴다

광주 세나뚜스

대담 · 정리
권지영 편집위원

성모 마리아의 군단! 3년간 레지오 마리애 단원으로 활동하던 때 단장님이 강조했던 말입니다. 지금도 아침 · 저녁기도만큼은 거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그때가 기도를 가장 열심히 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겨울호에는 한국에서 레지오 마리애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을 소개합니다. 바로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본당인데요. 조상현(안드레아 · 60 · 광주 학운동본당)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뚜스 단장님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최근 새로운 기념관도 짓고 있다고 하니, 완공되면 성지순례를 겸해서 방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지오 마리애 기념관 착공식을 기념해 2015년 5월 개최한 성모신심 대회

레지오가 한국에 처음 도입된 과정을 들려주세요.

한국에 레지오 마리애가 도입된 것은 1953년 5월 31일입니다. 당시 광주교구장이신 현 하롤드 대주교님의 지도로 목포시 산정동본당에 '치명자의 모후' 쁘레시디움과 '평화의 모후' 쁘레시디움, 경동본당에 '죄인의 의탁' 쁘레시디움이 설립됐습니다. 이어 광주, 청주, 춘천, 원주, 전주, 서울, 제주 지역의 각 본당에 확산돼 각 교구에 확장됐습니다.

초창기 각 쁘레시디움은 아일랜드 더블린의 꼰칠리움 직속 쁘레시디움으로서 꼰칠리움의 지시를 직접 받았고, 사업보고를 했습니다. 레지오 마리애가 한국에 도입된 지 2년이 지난 1955년 10월에 한국 최초의 꾸리아가 창단됐습니다. 같은 시기 산정동본당에 3개 쁘레시디움(치명자의 모후, 평화의 모후, 동신자의 모후), 경동본당에 죄인의 의탁 쁘레시디움, 함평본당 전교의 모후 쁘레시디움 등 모두 5개의 쁘레시디움이 생겨나 '목포 매괴의 모후' 꾸리아가 탄생한 겁니다.

1956년 8월 7일에 광주시 북동본당 산하 8개 쁘레시디움으로 '중재이신 마리아' 꾸리아가 설립됐으며, 같은 해 12월 '중재자이신 마리아' 꼬미씨움으로 승격됐습니다. 1957년 3월 한국 최초의 소년 꾸리아인 '목포 천지의 모후 꾸리아'가 창설됐습니다. 이어서 6월 '광주 바다의 별 꾸리아'가 생겼습니다.

레지오 마리애가 도입된 뒤 어떻게 확산되었나요?

한국에 레지오 사도직의 소개가 잘 이뤄졌기 때문에 교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본당마다 앞을 다투어 쁘레시디움 설립이 가속화됐습니다. 단원들은 사제와 수도자의 손과 발 역할을 하며 정성을 다해 봉사하고, 자신들의 성과에 소홀함이 없이 모범적인 신심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광주대교구는 한국 본산지답게 레지오 사도직 참여도가 높았으며, 교본 규칙에 따라 전국을 지도하며 착실히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1957년 5월 세계 본부인 꼰칠리움으로부터 한국 레지오 마리애의 지도적 역할을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꼬미씨움에 의뢰한다는 승인서를 받게 됐습니다. 이듬해 5월 세계 본부인 꼰칠리움에서 한국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뚜스를 승인했습니다. 한국에 레지오 마리애가 도입된 지 5년 만에 전국적인 조직을 완료해 국가평의회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초창기 레지오 마리애 도입 과정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나요?

평신도의 특수 사도직은 레지오 마리애 신심단체가 전국의 모든 본당에 소개되자 사제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선행되면서 서로 앞다퉈 평신도들에게 권장했고, 쁘레시디움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레지오 마리애의 도입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예컨대, 레지오 마리애 교본에 관해서인데요. 교본 내용이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교본 규칙을 무시하거나 적절한 편법으로 운영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또 지도자의 편리에 의해 조직이 운영되다보니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것을 뒤늦게 깨닫는 일도 생겨났습니다. 어떤 평의회에서는 묵주기도를 5단이 아닌 1단만 바치는 경우나 교본에 조직, 운영에 따른 규칙을 따르지 않아 곤란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지오 마리애 단체의 고유한 특성(자기 자신의 성화, 하느님 말씀의 전파)을 토대로 영성생활을 이어갔고, 오늘날 대군단의 조직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세나뚜스는 아일랜드 출신 지도신부님을 맞아 더블린에서 하고 있는 정통성 있는 레지오를 바로 전수받아 전국의 레지오 지도에 임했고, 레지오 운영의 본보기가 됐습니다.

레지오 마리애가 전국으로 확산된 과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울 지역의 레지오는 1955년 8월 광주대교구 현 하롤드 대주교님의 주선으로 당시 서울 성의중 · 고등학교장으로 계신 김성환 신부님의 지도를 받아 명수대본당(현 혹석동본당)에 평화의 모후 쁘레시디움이 설립된 이후 모든 본당에 확산됐습니다. 1956년 9월 혜화동본당에 치명자의 모후 쁘레시디움이 설립됐고, 1957년 1월 혜화동본당에 상지의 좌 꾸리아가 설립됐습니다. 3년 후 1960년 명동대성당에 본부를 둔 무염시태 꼬미씨움이 설립됐고, 같은 해 5월 무염시태 꼬미씨움으로 승격시켜 수도권 레지오를 관리 운영해 오다가 날로 확장되는 레지오 조직의 관리를 위해 1974년 무염시태 꼬미씨움을 레지아로 승격시켰습니다.

한국 세나뚜스는 광주, 대구, 부산, 전주, 마산, 제주, 안동 교구의 레지오 관리와 운영만을 전담하게 됐습니다. 1978년 5월 한국 세나뚜스 주최로 한국 레지오 마리애 도입 25주년 행사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전국의 단원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모시고 개최했습니다. 1979년 7월 서울 상지회관에서 한국 천주교 200주년을 바라보며 교세 200만 신자 확보를 위한 전국 꼬미씨움 단장, 지도신부 회의를 개최하고, 민족 복음화 활동 5개년 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1984년 5월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거행됐던 성인 103위 시성식과 한국 천주교 200주년 경축기념 미사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1986년 10월에는 광주 명상의 집에서 전국 꼬미씨움 단장, 지도신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3세기를 향한 민족 복음화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내용은 1990년까지 300만 신자수를 목표로 선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자는 다짐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레지오 나눔 봉사 기념관
2015년 4월 11일 착공을 기념하여 2015년 5월 14일 목포 실내 체육관에서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뚜스 산하 5,300여 명이 모여 성모신심 대회를 개최하였다. 구속주회 강 요셉 신부와 여산본당 박상운 토마스 신부의 강의에 이어 옥현진 시몬 총대리 주교의 집전으로 파견미사를 드렸다. 현재 지하 1층 지상 4층 중 골조 공사가 마무리되었으며 201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1998년 5월 23일에는 레지오 마리애의 최초 도입지인 목포 산정동성당 구내에 한국 레지오 마리애 기념관을 건립해 한국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뚜스 총재 윤공희(빅토리노) 대주교님의 주례로 축복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산정동 레지오 마리애 새 기념관은 언제쯤 완공되나요?

새 기념관 건립 준비는 10년 전부터 해왔는데, 올해 공사가 착공됐고 연말이면 골조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년 6~7월경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목포성지 조성은 산정동 90-1번지 일대 지하 1층, 지상 4층이며 총사업비 577억 원 규모입니다. 성 미카엘 기념 대성당, 성직자 동, 레지오 마리애 기념관 등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호남지역 첫 선교지 의미를 복원하고, 성지 순례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정동성당은 1935년 레지오 마리애의 발상지로 550만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기념비적이며, 상징적인 의미가 큰 곳입니다. 전국 각 성당마다 레지오 단체를 보유하고 있고, 가입한 신도만 55만 명에 달해 관광자원의 가치는 물론 관광중심도시 목포의 랜드 마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 기념관은 2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피정의 집, 소강당, 중강당, 대강당 등으로 구성돼 있어 기도를 위해 방문하는 신자들에게 숙박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작년 산정동성당을 다녀간 방문객은 일반 신도 성지순례 2,000명, 레지오 마리애 성지순례 3,000명, 피정 500명, 선교행사 700명 등 총 6,700명으로 기록됩니다. 여기에 일반인 관광객 1,500명 등 1년간 8,200명으로 집계됩니다. 올해 방문자는 1만 4,7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7년 레지오 마리애 기념관이 완공되면, 방문객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당에서는 2017년 7만 1,500명, 2018년 11만 8,000명, 2019년 19만 4,500명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광주 세나뚜스에서 특별히 진행하고 있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단장으로서 중점을 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현재 레지오 마리애는 열심히 활동하고, 기도하는 단원들이 대다수지만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나라 레지오는 고령화, 충성심 약화, 활동 기피, 레지오 정신 쇠퇴, 친목단체로 변형 등입니다.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 활동하는 모임이 돼야겠다고 뜻을 모아 레지오 단장 교육에 실시했습니다.

이 후 전 단원이 성경을 완독하자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됐고, 레지오에서 성경 읽기표를 배부해 말씀을 읽고, 회합 때 당번을 정해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성경 읽기를 독려했습니다. 결국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느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레지오 단원이라면 최소한 성경을 완독하자는 목표를 중점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레지오 마리애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월간으로 나오는 잡지인데, 이 잡지를 통해 레지오 단원들의 활동내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다른 꾸리아나 쁘레시디움에서 활동하는 내용을 공유하여 레지오 단원으로 활동하는 데 일종의 팁을 얻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물 안에 갇힌 것처럼 활동내역이 서로 공유가 잘 안 됐는데, 레지오 마리애지를 활용한 이후부터 활동이 다양해지고, 그 내용을 다시 잡지에 싣기도 하면서 구독률도 증가했습니다. 작년까지 1,630부가 판매됐는데, 올해 2,375부로 42% 늘었습니다. 레지오 마리애지를 읽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레지오 화합에서 소감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신도 연구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모색
- 한국 가톨릭 성인교육

김 율리아 사회사도직연구소 연구위원

교회가 자기 복음화의 길을 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때, 신자 재교육도 쇄신될 수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다변화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시대의 징표’들 안에 현존하는 하느님을 새롭게 체험하는 ‘새로운 복음화의 때’가 왔음을 전 세계 교회에 천명하였다. 특별히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도, 평신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체계적인 교리교육 활동에 대한 매우 귀중한 공헌을 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한국 교회 또한 평신도들이 “자신의 소명을 더욱 분명하게 발견하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면서 그 소명을 생활화하고자 하는 더욱 굳은 의지를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리교육에 힘써왔다. 그러나 평신도 교육은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교회 안팎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결코 녹록지 않은 것이 신자 재교육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 신자 재교육이 보완해야 할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한국 가톨릭 성인교육을 위한 교육목표 정립’이다. 교육활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면 세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이는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교육대상),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교육내용), 그리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교육방법)이다. 한국 교회는 시대의 징표에 따라 이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져야 할 필요가 있다. 교회가 세상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교육대상의 범주를 넓히고,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 재교육’이라는 개념은 더욱 보편적인 의미를 지닌 ‘가톨릭 성인교육’으로 개명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신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앙, 신심 교육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육대상의 범위를 넓혀 비신자들도 참여하는 ‘평생교육’, ‘모두를 위한 열린 교육’인 시민교육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는 ‘세상 속의 교회’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의지의 발로이며, 나아가 ‘가톨릭 성인교육’은 “더욱 성숙한 교회 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기초이고 “교회 내적 쇄신의 시대적 요청에 대한 교회 차원의 응답”이 될 것이다.

둘째, ‘신자 생활환경을 토대로 한 사목지침과 교육편람의 마련’이다. 한국 교회에서도 신자 재교육 쇄신을 위해 ‘신자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자교육과 사목활동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자의식 조사’나 ‘신자교육 실태조사’는 일관성을 지니지 못한 한정된 수집자료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실태 조사에 대한 연구보고서 대부분은 교구 내에서 사목방침을 위한 기본 자료로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이 신자 재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신자 재교육’이 ‘한국 가톨릭 성인교육’으로 확대되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 국민생활지표를 토대로 한국 가톨릭 신자의 삶의 질과 신앙생활에 대한 연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를 반영하여 사목지침과 교육편람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유기적인 가톨릭 성인교육의 체계 마련’이다. ‘신자 재교육’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 중의 하나가 교구, 본당, 단체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일관된 지침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한국 교회의 신자 재교육이 최소 단위인 본당에서부터 최종적인 기관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본당 신자 재교육 기구의 자율성 확립이다. 한국 신자 재교육에서 일관된 교육지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본당 교육 기구가 사목자의 배려 속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본당 교육 담당 기구가 교구 차원 성인교육 담당 기구의 지침을 공유하면서 서로 논의하고 합의하여 교육을 실시한다면, 본당 신자들은 사목자의 임기와 상관없이 일관된 교육과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각 본당과 본당 또는 연구소와 같은 교육기관들이 서로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본당 신자 재교육 담당 기구의 투명성 확립이다. 본당 교육 담당 기구가 교육 지침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상부기관인 교구 신자 재교육 담당 기구와 연계하게 되면, 한국 신자 재교육의 교육결과를 통계로 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가톨릭 성인 교육의 유기적인 체계 마련은 결국 본당 신자 재교육 기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누가 확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신자 재교육에서 교육주체는 평신도이어야 한다. 한국에서 신자 재교육이 유기적인 체계를 갖춘 가톨릭 성인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선결될 문제는 교육에 대한 평신도들의 의지이다.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할 점은 이미 교육을 받은 평신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들이 성숙한 시민,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한 교육대상이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열린 교회, 열린 신앙교육을 꿈꾸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한국 신자 재교육은 50여 년 동안 ‘쇄신’의 기로에만 서 있었다. 공의회 이후로 교회 내 ‘위’(성직자)와 ‘아래’(평신도)의 층이 무너지고, 교회의 ‘안’과 ‘밖’을 나누던 벽이 허물어졌다. 그럼에도 한국 교회가 변화의 흐름 속에 자신을 내던지며 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 및 존재 물음을 새롭게 던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한국 신자 재교육도 ‘쇄신’의 기로에만 멈춰 서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신자 재교육이 나아가야 할 좌표는, 한국 교회가 “자신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거룩한 힘을 통하여 모든 개인과 집단의 양심, 그들의 활동, 그들의 삶과 구체적인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할 때 정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가 “복음의 힘으로 인류를 내부로부터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대사회에서 무엇을 권고해야 할 것인가? 세상에서의 인간 활동은 무슨 궁극적 뜻을 지니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자문하고 해답을 모색해야 한다. 교회가 자기 복음화의 길을 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때, 신자 재교육도 쇄신될 수 있다. 이제 한국 평신도 교육은 쇄신의 기로에서 과감하게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교인’(churchman)으로만 머무는 데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세상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야 한다.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식 있고 교양 있는 시민이 되고, 나아가 이들이 복음화의 정신으로 성숙한 시민 사회를 이루게 하는 거름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한국평협 심포지엄2

향후 교회의 변화와 평신도의 역할[2]

정희완 요한 신부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이 글은 지난 9월 9일 인천교구 강화도 갑곶 순교성지에서 열린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 단체협의회 하반기 연수중에 발표한 내용의 후반부로 지난 호에 이어서 연재한다.

2.3. 평신도 교회 직무(LAY ECCLESIAL MINISTRY)

평신도들 역시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참여한다. 평신도들 역시 복음화와 성화를 위한 교회의 사도직에 참여한다. "평신도들은 세상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하느님께 부름 받았다"(「평신도교령」, 2항)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선언처럼, 평신도 역시 사도직을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렇다면 평신도가 수행하는 사도직과 성직자가 수행하는 사도직은 차이가 있는가. 수행하는 방식의 차이인가. 성직자는 주로 성사를 집전하는 방식으로 복음화와 성화 사도직을 수행한다면, 평신도는 생활의 증거와 선행의 방식으로 사도직을 수행하는가(「평신도교령」, 6항). 수행하는 장소의 차이인가. 성직자는 주로 교회 공간 안에서 사도직을 수행하고, 평신도는 교회 밖 세상 안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는가. 그래서 평신도는 주로 가정과 사회 안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수행하는가.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직무"(ministry)라는 단어는 성직자와 관련된 단어였다. 그렇다면 평신도는 직무자(또는 교역자 minister)가 될 수 없는가.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는 없는가. 사제 직무, 부제 직무는 있지만 평신도 직무란 없다는 뜻인가. 사실, 보편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의 구분에서 볼 수 있듯이, "직무"라는 용어는 평신도와 성직자간의 차등의 뉘앙스를 풍긴다. 사제와 부제는 교회 안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평신도는 교회 안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 한편으로 성직자라는 단어 역시 묘한 뉘앙스를 풍긴다.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언어유희 같은 질문을 던져본다. 성직자는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인가. 아니면 성직자 존재 자체가 거룩하다는 뜻인가. 직무가 거룩한 것인가. 아니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거룩한 것인가. 직무는 항상 존재와 인격과 일치되어 수행되는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무로 불림을 받는 것은 아니다.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직 그 이상을 의미한다.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직무는 교회에 의해 불림을 받고 교회에 의해 파견되어 공식적으로 복음화와 선교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1]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파견했다 해서 베드로를 그리스도의 사도라 명명하는데 반해, 교회가 부르고 파견했다 해서 바오로는 교회의 사도라 불리었다는 것은 어떤 시사점을 준다.

통상적으로 교회 안의 평신도 역할을 지칭할 때, "평신도 사도직"(lay apostolate) 또는 "평신도의 소명"(lay voc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평신도의 역할과 일을 교회의 직무와 연결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2005년 미국주교회의에서 발행한 "주님의 포도밭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Co-Workers in the Vineyard of the Lord: A Resource for Guiding the Development of Lay Ecclesial Ministry*)이라는 문헌에서 "평신도 교회 직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평신도 교회 직무자(lay ecclesial minister)란 어떤 특별한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평신도 교회 직무자란 평신도들 사이에서 더 높은 교회 지위를 갖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평신도 교회 직무자를 어떤 특별한 지위의 개념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결국 평신도의 준성직자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평신도 교회 직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교회의 부름과 파견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복음화와 선교라는 교회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상호협력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미국주교회의는 평신도 교회 직무를 공식적인 인준의 절차를 거쳐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평신도 교회 직무자는 공식적인 인준의 과정을 거쳐서 선발되고 파견된다.

1 Richard R. Gaillardetz, "The Theological Reception of Co-Workers in the Vineyard of the Lord," in *Lay Ecclesial Ministry: Pathways Toward the Future*, *ed. Zeni Fox* (*New York: A Sheed & Ward Book*, *2010*), *23*. 게일라데츠는 직무자에 대한 흥미로운 예를 든다. 어떤 신자가 자신의 본당에 가서 토요일 아침 노숙자들을 위한 식탁 봉사를 했다고 해서 그가 직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직을 수행한 것이다. 하지만 그 본당 공동체가 그 신자를 공식적으로 무료급식소의 어떤 담당자로 임명해서 그 일을 수행하게 할 때, 그는 직무자가 된다. 왜냐하면 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불림을 받고 파견되었기 때문이다.

인준의 과정은 대체적으로 개별적인 부르심, 교회의 식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양성의 과정을 수료, 교구장 주교의 인준, 직무를 수임하는 전례예식의 형태로 구성된다.[2] 이러한 형태의 과정을 밟아서 교회가 인준하는 공식적인 직무들을 수행하도록 하는 이유는 평신도 교회 직무가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서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방식들과는 구별하기 위해서다. 결국, 특정한 직무를 위한 준비와 양성의 과정을 거치고, 주교와 사제와 부제의 사목적 직무에 긴밀히 협조하는 방식으로, 교회 안의 지도자로서 교계의 인준을 받아, 특별한 영역에서 평신도 지도자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이다.[3]

2.4. 한국 교회의 현실

한국 가톨릭교회에서는 여전히 평신도의 역할이 미미하다. 평신도의 역량의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세계의 다른 지역 교회들보다 성직주의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 교회의 신학적 현실은 보편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입장과 이해의 수준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신앙 감각에 대해서는 송용민 신부만이 천착해서 연구하고 있다. 대중 신심에 대해서는 사회학적, 신학적 관점에서 제대로 연구되지 않고 있다. 대중 신심에 대한 올바른 신학적 담론이 형성되지 않았고 교도권의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부족한 탓인지, 한국 교회의 대중 신심은 기복적 성향을 두드러지게 나타낸다.

한국 교회의 평신도 신학자들의 역할도 아직 두드러진 편이 아니다. 물론 앞선 세대의 평신도 신학자인 양한모, 지금 활동하고 있는 평신도 신학자들인 황종렬, 한상봉, 김근수, 주원준, 박문수, 황경훈, 최현순 등은 뛰어난 역량을 지니고 있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가톨릭 평신도 신학자인 조민아 역시 발군의 신학적 통찰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그들의 역량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는 장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슬픈 일이다.

한국 교회 안에서 교회 운동들 역시 저조한 편이다. 꾸르실료는 고유한 공동체적 운동이라기보다는 그저 신자 재교육 프로그램 정도로 소화되고 있다. 한국 교회 안에서 그래도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교회 운동은 포콜라레 정도다. 오푸스데이는 한국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다.

평신도 교회 직무에 대한 이해도 낮은 편이다. 물론 사목회의 임원이나 평협 임원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인준 형태의 임명장을 수여하는 예식을 행하기도 하지만, 교회 안의 공식적인 평신도 직무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시골 공소 등지에 활동하고 있는 평신도 선교사 정도만 교구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파견되는 형태를 취한다.

2 Susan K. Wood, "A Theology of Authorization of Lay Ecclesial Ministers," in *In the Name of the Church: Vocation and Authorization of Lay Ecclesial Ministry*, ed. William J. Cahoy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12*), *99*.

3 H. Richard McCord, "Lay Ecclesial Ministry: Pastoral Leadership in a New Era," in *In the Name of the Church*, 4.

3. 교회 쇄신의 방향과 평신도의 역할[4]

미래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시간의 흐름은 모든 것을 습관화하고 타성화한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교회 역시 관성적이고 타성적인 교회로 변해간다. 변화하는 세계 안에서 끊임없이 정화와 쇄신의 과정을 갖지 않으면 교회 역시 이기적인 모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른다는 것은 정화하고 쇄신하는 성령의 힘에 의탁한다는 뜻이다. 교회는 언제나 "우리에게 거짓 안도감을 주는 조직들 안에, 우리를 가혹한 심판관으로 만드는 규칙들 안에, 그리고 우리를 안심시키는 습관들 안에 갇혀 버리는 것을"(『복음의 기쁨』, 49항) 경계해야 한다.

교회의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 즉 교회 쇄신을 위해 평신도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5] 신앙과 신학의 영역에서 평신도들 역시 새로운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새로운 상상은 변화와 실천의 단초다. 신앙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신앙이 과연 무엇인지. 신앙을 수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때, 올바른 신앙을 수행할 수 있다. 교회의 사람, 그리스도인, 가톨릭 신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럴 때 올바른 가톨릭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

교회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교회의 변화를 낳는다.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자신의 문화를 갖고 있다. 교회의 문화를 어떻게 쇄신시킬 것인가. 제도로서의 교회는 구조적 측면을 포함한다. 교회의 구조를 어떻게 복음화와 선교라는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열린 구조로 만들 것인가.

교회의 구성원인 평신도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신앙과 교회에 대해 새롭게 상상할 것인가. 교회의 문화와 교회의 구조의 변화와 쇄신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여전한 숙제다.

3.1. 가톨릭 신자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상상

동어반복 같은 어리석은 진술이지만, 가톨릭 신자는 가톨릭교회의 사람이다. 가톨릭 신자란 세례를 통해 가톨릭교회에 소속되고, 가톨릭교회의 교리와 가치관을 따

4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서 그 혼이 되어야 한다."(「교회헌장」, 38항)는 선언처럼, 평신도는 역할과 임무는 오직 세상 안에만 있는 것인가. 성직자의 역할은 교회 안에, 평신도의 역할은 세상 안에 있다는 이분법은 지나치게 도식적인 생각이다. 교회와 세상의 경계는 점점 흐릿해진다. 교회 역시 세상 속에 있다. 성직자든 평신도든 교회와 세상 안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단지 그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장(chapter)은 교회 안에서의 평신도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5 미국의 보수적인 평신도 신학자들 역시 교회의 개혁과 쇄신을 주장한다. 그들은 대부분 복음주의의 방향으로 교회를 개혁하고자 한다. 그들의 개혁과 쇄신의 방식 안에서는 평신도들의 역할은 주로 세상 속에서의 역할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그들의 입장에 따르면 교회 개혁에 있어서 중심은 성직자들이다. 평신도들의 역할은 제한적으로 여긴다. George Weigel, *Evangelical Catholicism: Deep Reform in the 21st-Century Church* (New York: Basic Books, 2013), 189-203; Scott Hahn, *Evangelizing Catholics: A Mission Manual for the New Evangelization* (Huntington: Our Sunday Visitor, 2014), 99-116 참조.

르고, 가톨릭 전통을 수용하며, 가톨릭교회의 전례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 가톨릭교회의 방식이라는 의미다. 프로테스탄트 신자는 같은 하느님을 믿고 따르지만, 그 믿고 따르는 방식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방식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가톨릭교회의 방식이란 무엇인가. 가톨릭 신자에게 가톨릭 신자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가톨릭교회의 고유한 방식이란 무엇인가.

가톨릭 신자와 프로테스탄트 신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가톨릭 신자는 가톨릭교회에 소속되고, 프로테스탄트 신자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소속된다. 가톨릭 신자는 가톨릭 교리를 믿고 프로테스탄트 신자는 자신들이 속한 교파의 교리를 믿는다. 가톨릭 신자는 가톨릭교회가 가르치는 윤리적 입장을 택하고 프로테스탄트 신자는 그들 교파의 윤리적 지침을 수용한다. 가톨릭 신자는 가톨릭교회의 성인들의 통공과 가톨릭 전통을 수용하고 프로테스탄트 신자는 루터와 칼빈의 전통을 수용한다. 가톨릭 신자는 미사에 참여하고 프로테스탄트 신자는 예배에 참여한다. 결국, 소속과 교리와 윤리와 전통과 전례의 차원에서의 차이인가.

가톨릭의 정체성은 가톨릭교회가 세상과 관여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6]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가톨릭 신자는 가톨릭이라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가톨릭 종교 생활 안에서 표현된다. 세상 속에서의 가톨릭 신자라는 정체성은 가톨릭적 윤리 원칙들을 따르는 것으로 드러난다. 즉,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가톨릭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며,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가톨릭 윤리 원칙을 준수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결국 가톨릭의 정체성은 주로 신앙과 윤리의 재현(representation) 방식에서 드러난다.

정체성은 단순히 정태적(static)이 아니라 역동적(dynamic)이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학자들은 인정한다. 가톨릭의 정체성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는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기획(project)이다. 또한 가톨릭의 정체성은 하나의 요소를 구성되었다기보다는 복합적인 요소로 구성되었으며, 정체성의 특성에 대한 규정 역시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변해 간다. 예를 들어 가톨릭 전통을 수용하는 사람이 가톨릭 신자의 정체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전통을 이해하는 방식과 전통을 수용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7] 어떤 가톨릭 그룹들은 개혁적인 방식으로 전통을 해석하고 수용하며 또 어떤 가톨릭 그룹들은 보수적인 방식으로 전통을 해석하고 수용한다. 그 방식의 차이가 있다 해서 어느 한 그룹이 가톨릭 정체성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 한편으로, 통념적으로 알려진 가톨릭 정체성의 특성들을 거슬러서 행동하는 신자들이라고 해서 가톨릭 신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 많은 자유주의 성향의 가톨릭 신자들은 피임에 대한 가톨릭의 윤리적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때때로 거부하는 태도

6 Gerald A. Arbuckle, *Catholic Identity or Identities?: Refounding Ministiries in Chaotic Times*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13), xviii.

7 전통의 수용과 해석의 방식과, 가톨릭 정체성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Colleen Mary Mallon, *Traditioning Disciples: The Contributions of Cultural Anthropology to Ecclesial Identity* (Eugene: Pickwick, 2010) 참조하라.

를 취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가톨릭의 정체성을 완전히 갖지 못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의미다.[8] 사실, 가톨릭의 정체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특성을 지닌다. 더 나아가 가톨릭의 정체성과 제도적 교회에 대한 헌신은 가끔 충돌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9]

가톨릭 신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톨릭 신자라고 말할 때, 우리는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그들은 과연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를 가톨릭 신자라고 부르는 것일까. 우리가 성당을 다니고 있어서? 우리가 믿는 가톨릭 교리 때문에? 우리의 가톨릭 신앙은 오직 성당 다니는 것으로만 표현되는가. 우리의 가톨릭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종교적 이념으로 여기는 교리에 대한 충성으로만 표현되는가. 성당 다니는 일과 교리로만 우리가 우리의 가톨릭적 정체성을 드러낸다면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닌가. 신앙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만이 아니다. 신앙은 단순히 교리에 대한 지성적 동의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신앙은 어떤 종교적 관습에 익숙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신앙(faith)은 신념(belief)과 태도(attitude)와 행동(action)과 소속되기(belonging)를 포함하는 총제적인 것이다. 가톨릭 신자의 정체성은 가톨릭교회에 소속되어 가톨릭적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가톨릭 교리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가톨릭적 태도를 취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형성된다.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행동을 낳는다. 믿음에서 행동으로 도달하는 과정이 지속되면, 그 속에서 올바른 태도가 형성된다. 가톨릭적 믿음은 가톨릭적 행동을 낳고, 가톨릭적 믿음과 가톨릭적 행동의 지속 과정은 가톨릭적 태도를 낳는다. 태도가 믿음과 행동의 진정성을 담보한다. 태도는 일종의 덕(virtue)이다. 결국 신앙은 덕으로, 즉 태도로 표현된다. 가톨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톨릭적 태도는 어떤 것일까. 가톨릭적 태도의 핵심은 사목적인 겸손과 관대함과 포용성이다.[10] 겸손과 관대함과 포용성은 자비의 다른 이름이다. 자기 자신만이 진리를 갖고 있다는 교만과,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품지 못하는 옹졸함과, 진리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타자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배척하는 것는 가톨릭적 태도가 아니다.

사람의 정체성은 여러 요소로 구성된다. 젠더와 민족과 국가와 인종적 요소들이 있다. 남자로서의 정체성, 여자로서의 정체성,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 백인으로서의 정체성,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다. 그렇다면 일종의 종교적 정체성인 가톨릭 신자로서의 정체성은 성적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 국가적 정

8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Michele Dillon, *Catholic Identity: Balancing Reason, Faith, and Powe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참조하라.

9 Paul Lakeland, *Church: Engaging Theology – Catholic Perspective*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09), 62-68.

10 Richard R. Gaillardetz, *An Unfinished Council: Vatican II, Pope Francis, and the Renewal of Catholicism*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15), 138-148.

체성, 인종적 정체성, 계급적 정체성을 뛰어넘어 우선성을 갖는가.[11] 가톨릭 신자 간의 연대성이 민족적 연대성과 국가적 연대성에 우선하는가. 가톨릭 신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국가와 민족적 정체성보다 우위에 두고 있는가. 물론 한 개인은 다양한 정체성들을 갖고 산다. 한 개인 안에 가톨릭 신자로서의 정체성,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등이 복합적으로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과 결단의 자리에서 더 고려해야 할 정체성들이 있다. 그럴 때 가톨릭의 정체성이 항상 우선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가. 즉, 가톨릭 신앙이 항상 우선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가톨릭 신자에게 신앙은 삶의 자리에서 일차적이거나 중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항상 이차적이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또는 삶의 한 장식품으로만 작동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

가톨릭 신자에게 신앙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또한 가톨릭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가톨릭 신자들 서로 간의 교회적인 연대(ecclesial solidarity)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신앙의 연대는 이해관계와 이기심과 그릇된 이념에 기초한 집단적 연대와는 구별된다. 가톨릭 신앙에 기초한 교회적인 연대는 가톨릭 신자의 삶의 중요한 요소여야 한다. 물론 이 교회적인 연대가 다른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적 연대와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또한 이 교회적인 연대가 그저 신앙의 이름으로 맹목적인 동질성을 추구하고 이기적인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교회적인 연대가 그저 막연한 세계주의(cosmopolitanism)를 뜻하지는 않는다.[12] 이 교회적인 연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신앙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의 연대를 뜻한다. 사실 뭐 그리 복잡한 논리가 아닌, 이 교회적인 연대는 신앙 안에서 신앙의 형제자매들의 사정을 살피고 그들과 연대하는 일이다.

가톨릭 신자의 정체성은 어떤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가톨릭적 정체성은 열린 모습으로 끊임없이 하느님을 향해 가는 과정과 수련의 정체성이다. 가톨릭적 정체성은 그저 가톨릭적 관습과 교리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다. 가톨릭적 정체성은 무엇보다 삶 안의 태도에서 드러난다. 가톨릭적 정체성은 삶의 선택과 결단의 자리에서 신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신앙의 연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가톨릭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 새로운 상상력은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살게 할 것이다. 가톨릭 신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끊임없이 깨어 성찰할 때, 신자들은 교회 쇄신의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

3.2. 교회 공동체의 문화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공동체 문화 형성

교회의 본질적 특성의 하나는 교회의 공동체성이다. 교회는 하느님 백성들(people of God)의 공동체이다. 교회는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친교(communion)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이다. 오늘의 현실 교회는 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제대로 실현하는

11 이 문제에 대해서는 Michael L. Budde, *The Borders of Baptism: Identities, Allegiance, and the Church* (Eugene: Cascade, 2011) 참조하라.

12 Michael L. Budde, 3–4.

모습으로 서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과 반성 역시 신자가 해야 할 교회 쇄신의 출발점이다.

무엇이 공동체인가. 공동체를 공동체 되게 하는 구성 요소들은 무엇인가. 첫째, 공통의 목표와 지향과 신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일종의 이념 공동체다. 가톨릭 공동체는 당연히 가톨릭 신앙과 윤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종교 공동체다. 둘째, 구성원들의 시간과 공간이 전면적이든 부분적이든 공유되어야 한다. 일상과 삶을 나누는 일종의 생활 공동체다. 가톨릭 공동체 역시 대부분 본당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부분적으로 시간과 삶을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다. 셋째, 구성원들이 호혜성(reciprocity)을 바탕으로 공감과 연대를 이루는 것이다. 일종의 정서적 공동체다.[13]

가톨릭교회의 기초 핵심 조직인 본당과 교구 공동체는 과연 종교적 이념 공동체로서, 생활 공동체로서, 정서적 공동체로서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 본당은 그저 주일 전례만 참여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본당 안의 소수의 적극적 활동 신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본당 신자들에게 본당은 그저 미사 참여하는 공간, 단순한 전례 공동체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과연 신자들이 본당 안에서 복음화와 성화라는 목표를 지향하며 신앙과 윤리의 가치를 진정으로 공유하고 있는가. 또한 오늘날 본당은 생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신자들은 점점 본당을 매개로 일상과 삶을 나누지 않는 것 같다. 한국 교회에서도 일상과 삶의 중심 매개로서의 본당의 역할은 1990년대까지인 것 같다. 21세기에 들어서 한국의 본당들 역시 생활 공동체의 기능을 점점 상실해 간다. 생활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점점 약화되는 현상은 당연히 정서적 결속의 힘도 약화되는 현상과 맞물려 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본당에서 어떤 소속감을 잘 느끼지 못한다. 이것은 신자들이 본당 공동체보다는 가톨릭 액션 단체와 새로운 교회 운동들에 더 많이 이끌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신자들은 본당 밖의 교회 운동들에서 오히려 소속감과 정서적 연대를 느끼며, 개성화(individuation)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다.[14]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은 그 공동체에 소속됨으로써 갖는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공동체를 통해 사람들은 어떤 정서적 충족, 즉 인정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인간은 물질적 만족뿐만 아니라 자기 존엄을 추구하는 존재다. 인간의 자아의 형성과 자아실현은 타인의 인정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얻고 그를 통해 자긍심을 획득하지만, 무시에 의해 자긍심이 훼손되었을 때는 투쟁하는 '인정투쟁'의 과정이다."[15] 이러한 인정은 사랑과 권리와 연대로 표현된다. 타인으로부터 사랑 받음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자기 권리의 인정을 통해, 타인과의 연대를 통해 한 개인은 자아를 완성하고

13 차정식, 『기독교 공동체의 성서적 기원과 실천적 대안』 (짓다, 2015), 73–75; 김경동, 『기독교 공동체 운동의 사회학』 (한들출판사, 2010), 78–92 참조.

14 Bradford E. Hinze, *Prophetic Obedience: Ecclesiology for a Dialogical Church* (Maryknoll: Orbis, 2016), 196-197.

15 노명우, 『세상물정의 사회학』 (사계절, 2013), 206.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16]

모든 공동체는 그 나름의 인정 체계를 갖고 있다. 교회 공동체 역시 그 나름의 인정 체계를 갖고 있다. 초기 그리스도교가 급격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의 하나는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인정 체계 덕분이기도 하다. 그리스도교 인정 체계는 당대의 사회 인정 체계와 달랐다. 계급과 성별과 인종의 차이 따라 인정의 방식이 차이가 나는 사회 인정 체계와는 달리 그리스도교 인정 체계는 평등 체계였다. 모든 구성원들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평등하게 인정받는 인정 체계였다. 물론 실제 현실의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 체계가 어떻게 작동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교 교회 공동체는 이상적인 측면에서 평등 인정 체계를 표방하고 추구하는 공동체였다. 교회의 이러한 평등 인정 체계는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보여졌고,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되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 과연 그러한 평등 인정 체계가 작동되고 있는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평등한 상호 인정 체계 안에서 소속감과 정서적 유대를 느끼고 있는가. 자본주의 인정 체계는 자본을 통해 인정의 차이가 드러나는 사회다. 물론 여기서 자본이란 물적 자본뿐만 아니라, 권력과 지위를 통한 상징 자본도 포함된다. 자본주의는 가진 것을 토대로 인정의 차등이 이루어지는 체제다. 문제는 오늘의 교회 역시 이러한 자본주의 문화에 깊이 침윤되어 있다는 점이다. 교회 공동체 안의 모든 이들은 형제이며 자매라는 평등 인정 체계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 교회 안에서는 알게 모르게 자본주의적 인정 체계가 작동되고 있다. 세속의 자본과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더 많이 인정받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교회 인정 체계에 있어서 인정의 권력을 가장 많이 행사할 수 있는 성직자들이 오히려 더 세속의 인정 체계를 따르고 있다. 물론 세속의 인정 체계와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 또한 그래도 아직은 교회 공동체 안에는 평등 인정 체계를 지향하려는 노력이 있다. 하지만 현실의 교회 공동체는 점점 세속 자본주의 논리와 인정 체계에 물들어 가고 있다. 이것 역시 슬픈 현실이다. 이 시대의 신자들은 오늘의 교회가 다시 한 번 원래의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인정 체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쩌면 이러한 노력이 교회 쇄신을 위해 이 시대의 평신도들이 해야 할 역할의 하나일 것이다.

구성원들이 소속감과 정체성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로 복귀하기 위해, 고유한 평등 인정 체계를 지닌 그 원래의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 신자들의 많은 노력들이 요청된다. 또한 교회 안에 침투한 자본주의 논리 때문에 발생하는 문화적 왜곡 현상들, 즉 교회 안의 물신 숭배 풍조, 기복적이고 이기적이고 상업적인 교회 문화들, 여전한 교회 안에서의 성차별의 문화들, 살아있는 신앙의 말들이 아닌 추상적이고 교조적인 종교적 관성의 언어들만 난무하는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늘 성찰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 교회 공동체 안에 올바른 신앙의 문화를 어떻게 형성하고 구축할 것인가. 이 또한 여전한 숙제다.

16 악셀 호네트, 인정투쟁, 문성훈 · 이현재 옮김 (사월의 책, 2011); 문성훈, 『인정의 시대』 (사월의 책, 2014) 참조.

3.3. 교회 구조의 변화 촉진과 교회 운영에 참여

제도로서의 교회는 현실 속에서 복음화와 선교를 지향하기보다는 제도의 유지와 관리에 치중할 위험이 있다. 제도와 조직은 그 본성상 변화를 지향하기보다는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습성이 있다. 세상의 모든 제도가 갖는 치명적인 한계다. 따라서 제도로서의 교회 역시 끊임없는 쇄신의 과정에 있어야 한다. "교회의 관습과 행동 양식, 시간과 일정, 언어와 모든 교회 구조가 자기 보전보다는 오늘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적절한 경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목 쇄신을 요구하는 구조 개혁은 이러한 의미에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복음의 기쁨』, 27항)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진술은 교회 구조의 지속적인 변화와 쇄신에 대한 분명한 요청이다.

교회 안의 제도와 구조의 변화와 쇄신은 단순히 제도와 구조의 민주화라는 맥락에서 접근할 수는 없다. 세상의 모든 제도와 구조는 민주화(democratization)라는 방향으로 움직여 가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명제다. 하지만 교회의 제도와 구조의 변화와 쇄신의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한 양상을 띤다.[17] 교회는 제도로서의 교회라는 차원도 있지만 신비로서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차원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교회 안의 제도와 구조의 변화와 쇄신은 단순히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구조의 형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론 제도와 구조는 끊임없이 변해 가야 하지만, 새로운 제도와 구조 역시 시간 속에서 생동감을 또 다시 잃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훌륭한 구조라 하더라도 그 구조에 생기를 주고 지탱하고 평가하는 생명이 있을 때에만"(『복음의 기쁨』, 26항) 복음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드러난 교회 제도와 구조의 변화와 쇄신의 방향은 단체성(collegiality)과 공동합의성(synodality)라는 개념에서 잘 드러난다. 물론 이 개념들은 교회 통치에 있어서 주교들의 태도와 입장에 관한 개념들이다.[18] 하지만 단체성과 공동합의성의 정신은 교회 구조 전반에서 실현될 필요가 있다. 단체성과 공동합의성에 대한 공의회의 강조는 교회의 모든 제도와 구조가 대화와 협력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교회의 제도와 구조는 대부분 성직자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더 나아가 교회의 통치와 운영 역시 성직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교회를 통치(rule)하고 다스리는(govern)는 일은 주교의 임무다(『교회헌장』, 8항). 그렇다면 교회의 통치권(governance)에 평신도는 참여할 수 없는 것인가. 성직자의 통치와 다스림에 협력하는 방식으로밖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개념은 어쩌면 세속의 개념이 교회로 유입된 것인지도 모른다. 교회의 모든 행위는 섬김(service)을 지향해야 한다.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이 교회에 들어온 것은 운동(movement)으로서의 교회에서 제도와 구조로서의 교회로 변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17 물론 넓은 의미에서 교회의 제도와 구조는 민주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쇄신되어야 한다는 것도 옳은 명제다. 이에 대해서는 Luca Badini Confalonieri, *Democracy in the Christian Church: An Historical, Theological, and Political Case* (New York: Bloomsbury, 2012) 참조하라.

18 Massimo Faggioli, *A Council for the Global Church*, 229-253 참조.

성직자 중심의 교회의 통치와 운영은 직무 사제직과 리더십과의 관계를 오랫동안 오해해서 발생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성직자로서의 서품이 보편 사제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직무 사제직이 보편 사제직보다 위계적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구별될 뿐이다. 비록 본질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말이다. 교회법과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직무 사제직을 수행하는 성직자들은 분명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다. 하지만 성직자가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것은 위로부터(from above)가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부터(from within) 이다. 또한 성직자의 리더십은 세속 권력의 관점에 말하는 "지배를 의미하는 권력"이 아니라 복음화를 향한 봉사의 리더십이다. 성직자로의 서품은 위계적 승진이 아니라 섬기는 지도자로서 신자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에 대한 교회의 인정(recognition)이다.[19]

제도로서의 교회의 통치와 운영에 평신도들의 협력과 참여가 요청된다. 물론 영적 지도와 성사의 집전에서 성직자의 우선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교회법적 통치의 문제에 있어서 성직자의 권한과 역할은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교회의 운영에 있어서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요청된다. 교회의 통치와 운영에 있어서 성직자와 평신도 간의 권력관계를 통한 지배구조는 언제나 쇄신되어야 한다. 잠정적 대안으로는 "성직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평신도들과 공유함으로써 평신도의 교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일종의 협력적 성직자 중심주의다."[20]

사실 교회 구조의 변화와 쇄신에 대한 목소리는 언제나 있어 왔다. 문제는 과연 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가이다. 성직자들의 반성과 성찰이 먼저 요청된다. 하지만 또한 평신도들의 지속적인 예언자적 목소리 역시 당연히 요청된다. 반성과 성찰, 그리고 새로운 예언자적 요청들이 교회 제도와 구조의 변화 쇄신의 실천과 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나가는 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오직 성령만이 아신다. 성령께서 교회를 이끄신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당신이 이끄시는 교회의 변화와 쇄신의 길에 우리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신다(call). 교회의 변화와 쇄신에 참여한다는 것은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의미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지상의 교회는 세상 안에 있다. 세상 안에 있는 교회는 세상과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있다. 교회는 세상의 복음화를 겨냥한다. 하지만 세상 역시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 올바른 방식으로 세상에 적응(aggiornamento)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는 토착화(inculturation)라 부른다. 세상은 교회에 건강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세상은 자주 교회를 세속에 물들게 한다. 부정적인 맥락에서의 세속화(secularization)다. 오늘날의 현실 교회는 과연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세속에 물들어 변해 가고 있는가. 교회 안의 일들에 평신도들의 다양한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교회 안에 점점 자본주의의 논리가 내재화되는 현상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다. 한국 교회는 아직도 많은 부분 세계 교회의 흐름과는 달리 평신도의 교회 안의 일들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편이다. 그 반면에 자본주의 물질주의 경향은 세계의 다른 지역 교회들보다 더 강한 편이다. 이렇게 말하면 한국 교회의 현실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 안에 평신도의 등장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보편사제직의 중요성과 평신도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신학적 전망의 제시는 공의회 이후의 교회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공의회 이후의 교회는 모든 신자들의 신앙 감각과 대중들의 신심 속에 숨어 있는 복음화의 힘들을 재발견했다. 또한 본당과 교구의 경계를 뛰어넘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 운동들은 복음화를 위한 평신도의 역량을 새롭게 형성시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공의회 이후 교회는 교회 안의 직무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발전시켰다. 직무(ministry)는 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 직무자(minister)는 "지배나 영예를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을 섬기고 사목 임무를 다하도록 온전히 봉헌"(『사제 양성 교령』, 9항)된 사람이라는 것을 교회는 깨달았다. 직무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교회 안의 평신도 직무를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21] 직무는 권력과 지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화와 선교를 위해 있는 것이며, 교회 안의 순서(order)는 서열이 아니라 친교를 위해 있는 것이다.[22] 교회의 직무가 갖는 본질적 방향성과 그 특성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교회의 직무를 맡은 사람과 맡지 못한 사람 사이에 존재적 위계라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관계가 지배와 서열의 관계가 아니라 봉사와 친교의 관계임을 알게 될 것이다. 성직과 평신도의 관계를 우리는 오랫동안 오해해 왔는지도 모른다.

"새로운 복음화는 세례 받은 모든 이의 주도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복음의 기쁨』, 120항)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선언하고 있다. 이 시대의 평신도의 모습에 대해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교회의 많은 지체들은 그들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기를 바라고, 자신들에 적합한 방식으로 교회 생활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본당과 여러 단체와 운동을 통하여 스스로를 조직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며, [인터넷의] 사

19 Paul Lakeland, "Set into the Future: The Role of the Laity," in *From Vatican II to Pope Francis: Charting a Catholic Future*, ed. Paul Crowley (Maryknoll: Orbis, 2014), 132-134.

20 김선필, 『한국천주교회 지배구조의 형성과 변형: 교회 쇄신을 위한 사회학적 검토』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논문, 2016), 45.

21 Richard Lennan, "Ministry as Merciful Accompaniment," in *Go Into the Streets: The Welcoming Church of Pope Francis*, eds. Thomas P. Rausch and Richard R. Gailalardetz (New York: Paulist Press, 2016), 142-144.

22 David Noel Power, *Mission, Ministry, Order: Reading the Tradition in the Present Context* (New York: Continuum, 2008) 참조.

회 매체를 통하여 다른 신자들과 선의의 모든 사람들과의 접촉을 추구하게 되었다.[23]

많은 선구자적 평신도들이 위의 진술처럼 행동해 왔고, 교회 안에서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 왔다. 이 시대의 모든 평신도들 역시 교회 안에서 그저 수동적인 수용자로만 서 있어서는 안 된다. 세상 안에서의 평신도의 고유의 역할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자신들의 역할과 권한이 있음을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의 올바른 방향의 변화와 쇄신의 노력들에 있어서 평신도들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이 성직자들의 몫만이 아니다. 교회의 구성원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교회의 올바른 방향의 변화와 쇄신을 위해 평신도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해, 성직자와 평신도의 이상적인 관계에 대해, 이러 이러해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에 대해 그저 목소리만 소리 높여 외치면 되는가. 현실 속에서의 실현과 실천 가능성을 생각하면, 많은 이상적이고 당위적인 것을 말한다는 것이 헛된 것이라는 비관적인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변화의 시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상상에서 출발한다. 교회의 모습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상상, 교회의 직무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상상, 평신도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상상, 교회 안의 성직자와 평신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상상이 향후 교회의 변화와 쇄신의 시작이 될 것이다. 변화와 쇄신의 시작은 교회 주체의 각성을 요청한다. 변화의 기미를 내포하는 기존 현상의 균열은 신앙적으로

23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 생활에서의 신앙 감각』, 96.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신앙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란 끊임없이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공부하고 성찰하는 사람이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상상이 현실화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여럿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상상은 개인적 차원에서보다 공동체적 차원에서 더 강력한 현실화와 지속성의 힘을 갖기 때문이다. 물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상상을 공동체적 차원에서 현실화하고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함께 행동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응답하는 기술을 터득해야 하는데, 그 과정은 매우 어려우면서도 분명한 해답조차 없는 형극의 길이며, 흔히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24]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교회의 많은 운동들이 처음과는 달리 변질되기도 하고 소멸의 길에 이르기도 하는 것도 어쩌면 이런 이유인지도 모른다. 교회의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좌절하지 않는 더 많은 노력과, 성령께 더 많은 기도가 요청되는 이유다.

당대를 읽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신앙인으로서 복음적 가치를 지키며 복음적 방식으로 살아가기가 아주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간다.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그저 소비의 행위로 전락하게 되는 자본주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간다. 세상의 체제들은 억압적 형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유혹의 방식으로 접근한다. 더 이상 혁명이 불가능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이 교묘하고 복잡한 시대에 참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공부해야 한다. 참 공부란 끊임없이 질문하고 성찰하는 방식의 공부다. 끊임없이 교회의 모습과 신앙의 삶에 대해 다양한 각도와 관점에서 성찰하고 공부해야 한다.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변화의 기미는 공부에서 시작된다. 공부를 통해 신학적 성찰의 힘과 신앙의 감각을 성장시켜야 한다.

우리는 신앙의 세월이 쌓여갈수록 교리 지식과 전례에는 점점 익숙해져 간다.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교적 삶의 방식을 살아내는 데는 진전이 없거나 더딘 것이 아닌지 늘 경계하고 성찰하면서 신앙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성찰과 공부, 그리스도교적 삶의 방식을 살아내는 것이 참 영성이 아닐까. 교회의 변화와 쇄신이 신자들의 각성과 성찰과 공부에 달려 있다고 말하기가 참 어처구니없고 미약한 것처럼 보인다. 변화와 쇄신을 위한 뚜렷하게 효과적이고 기발한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삶의 진실은 언제나 단순한지도 모르겠다. 성찰적 신앙과 깨어 있는 신앙인들만이 교회의 변화와 쇄신을 조금씩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24 리처드 세넷, 『투게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김병화 역 (현암사, 2013), 18.

북한생활 체험기3

당신 손에 제 운명이 달렸으니 제 원수들과 박해자들의 손에서 저를 구원하소서(시편 31,16)

박정일 주교 마산교구 원로사목자, 전 마산교구장

구름 같은 피난민 행렬은 길도 없는 넓은 평야 논밭을 걸어야 했다. 국도는 군인들의 몫이고….

현재의 박정일 주교

고향 집에 도달한 것은 10월 말경이었다고 기억한다. 인민군이 도주하고 공산당이 물러난 고향 마을은 평화로웠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조용한 마을의 분위기와 마음의 평화였다. 그러나 나는 UN군이 점령한 평양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특히 동료 신학생들과 신학교에 관한 소식이 궁금하여 마냥 무료하게 시골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평양으로 달려갔다. 때는 11월 중순경이었다.

그런데, 평양에서 며칠 동안 머물고 있는데 갑자기 많은 피난민들이 평양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중국 공산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하여 압록강을 건너 남침하므로, 북진하던 UN군은 후퇴하고, 따라서 많은 피난민들도 남하하여 평양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에 이미 대동강 철교와 인도교는 모두 폭파되어 대동강을 건널 수가 없었으므로 피난민들은 대동강 변에서 우왕좌왕 아비규환의 대혼란을 이루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난민들은 남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이 대동강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 수심이 얕은 곳에서 옷을 벗고 건넜는데 동사한 사람이 많았다고 들었다. 12월 초의 평양 날씨는 매우 춥다.

친필 쪽지를 주신 몬시뇰 캐롤

그런 상황에서 나는 몹시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고향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의 안위 때문이었다. 필시 가족들도 피난길에 올랐을 터인데, 수만 명의 피난민이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는 이곳에서 알고 있는 집도 없고, 어디서 만나기로 한 약속도 없고….

2~3일을 고민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하루는 관후리성당(낯익은 옛 평양교구 주교좌성당)을 찾아갔다. 거기에서 몬시뇰 캐롤(메리놀 외방선교회 선교사, 한국명 안 주교, 당시 평양교구장 서리)을 만났다. 미 제8군 군종신부로 참전하고 계셨다. 신학생인 나를 반가이 맞아주셨다. 월남을 도와주시기 위해 영문 쪽지 한 장을 주셨다.

"To whom it may concern…." 즉, "이 사람은 그리스도 신자인데 가능하면 편의를 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안 주교님께서는, 군종사제로서 바쁘신 가운데도, 나에게 주신 그런 쪽지를 수십 장 친필로 써서 만나는 평양교구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한다. 참으로 고마운 분이시다.

당시 수복된 평양에는 윤공희 대주교님(은퇴하신 전 광주대교구장, 당시는 차부제)과 '내가 잘 알고 있던' 군종신부로 파견된 두 분의 평양교구 신부, 그리고 현재 서울대교구 은퇴 사제인 김득권 신부(본래 평양교구)가 있었지만 그때에는 만나지 못하였다.

다음날 나는 '이 상황에서 도저히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고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으니 혼자서라도 월남해야겠다.'는 마음을 굳히고, 대동강 변 연광정(練光亭) 앞에 나갔다. 거기에서 미군 지프들이 운집한 피난민 가운데를 헤치고 대동강 위에 놓여 있는 부교(浮橋)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안 주교님께서 주신 이 쪽지를 가지고 저 지프를 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인파를 헤치고, 한 지프에 다가가 운전병에게 쪽지를 보였더니 잠깐 훑어보고는 그냥 돌려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다음 지프에 시도하였더니 타라고 한다. 지프가 대동강을 건너는 데는 5분도 안 걸렸다. 남쪽 강변(선교리) 모래사장에 도착하여 내리라고 한다. 구사일생이라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뛰어내리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못한 것 같다. 12월 4일 정오쯤이었다. (12월 4일은 UN군이 평양을 포기한 날로 기록되어 있다.) 나는 지금도 편하게 평양을 탈출한 그 당시를 회고할 때에 '그 혼란 속에서라도 좀 더 부모님과 가족들을 기다렸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과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가끔 있다.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우리 가족은 어느 날 저녁식사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총소리가 나고 중공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빈손으로 피난길에 올랐었다. 부모님을 위시하여 두 형님과 형수님들, 3명의 여동생과 조카들까지 합하여 10명의 대식구였다. 어렵게 평양까지 도달하였으나, 강을 건널 수가 없어서 대동강 상류로 올라가 얕은 곳에서 옷을 벗고 건넜다고 한다. 그 후 월남에 성공한 것은 부모님과 여동생 셋뿐이다.)

맨발로 남으로 남으로 걷다

지프차에서 내린 나는 날 듯한 기분으로 걷기 시작하였다. 아무 생각도 없었다. 다만 남으로, 남으로…. 빨리 걸었다. 구두가 작아서 맨발로 걸었다. 저녁때에 도착한 곳이 중화(원주교구 초대 교구장이었던 지학순 다니엘 주교님의 고향)라는 작은 읍이었다. 성당을 찾아갔는데 피난민들이 꽉 차 있었다. 피난 때에 천주교 신자들은 어디를 가나 성당에서 숙식을 해결하곤 하였다. 불편한 가운데서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하며 잘 지냈던 것 같다. 다행히 거기에서 잘 알고 지내던 열심한 교우 가족을 만나 함께 걷게 되었다. 두 자매와 어린이 셋, 그리고 나 5명이 함께 걸었는데 꼬마 하나를 업고 걷는 것이 내 몫이었다.

구름 같은 피난민 행렬은 길도 없는 넓은 평

대동강 철교를 아슬아슬하게 건너는 피난민들.

야 논밭을 걸어야 했다. 국도는 군인들의 몫이고…. 저녁때가 되면 아무 마을에나 들어가서 빈 집을 찾아 들어가 먹고 자곤 하였다. 주민들이 피난을 떠나서 많은 집들이 비어 있었고 남기고 간 음식물도 있었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먹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약 1주간을 걸어 38선에 위치하고 있는 해주시 입구에 다다랐다. 거기에서 우리는 참으로 전쟁의 비참한 모습을 목격하였다. UN군 공군의 폭격과 총격으로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들이 많이 사망하여 도로 위와 주변 논밭에 시체들이 수도 없이 많이 널려 있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그 시체들 가운데를 다니며 시체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둘러보고 있지 않는가. 아마도 자식이나 가족을 찾고 있었을 것이다….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김충무 신부님과 38선을 넘다

해주에 도착한 우리는 해주성당을 찾아 들어갔다. 예측한 대로 피난민들이 초만원이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우리는 38선으로 나갔는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피난민들이 38선을 넘지 못하고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국군들이 월남하는 피난민들이 38선을 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유는 "국군과 UN군이 북진하고 있으니 월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돌려 북으로 되돌아갔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사제복을 한 어떤 신부님(김충무 클레멘스)이 국군과 "사제로서 남한으로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김 신부님은 본래 연길교구 사제인데 평양 홍용호 주교님의 요청으로 평양교구에서 약 7년간 사목하시다가 나와 같은 시기에 피난길에 오르셨던 것이다. 그 후 신부님은 마산교구 진해 중앙본당(당시는 부산교구) 제5대 주임으로 사목하셨다.

나와 동행하던 자매들이 그 상황을 보고 나에게 "신학생은 신부님께 부탁하여 함께 월남하라."고 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며칠 동안 어려운 피난길을 함께하였는데 혼자 따로 헤어지는 것이 미안하여 "상황을 좀 두고 보자."며 거절하였다. 그러나 자매들이 계속 권하기에 "그럼, 말씀이나 드려보지요." 하고 신부님께 말씀드렸더니 신부님께서 흔쾌히 허락하시어 신부님과 동행하게 되었다. (그 후 나는 월남하여 신학교에 입학하였고 약 2년 후에는 로마로 유학을 떠났기 때문에 자매들의 소식을 전혀 알 길이 없어 매우 아쉽다.)

김 신부님과 우리 일행은(신부님과 신부님 가족, 수녀 지원자 2명, 그리고 나, 모두 5명) 무사히 38선을 넘어 남하를 계속할 수 있었다. 수녀 지원자 2명은 월남하여 두 분 다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회 수녀가 되었는데 지금은 다 천당에 가셨지만, 생전에는 내가 부산을 방문할 때마다 피난 때의 추억을 나누곤 하였다.

이틀을 걸어서 우리는 임진강 하구에 도달하였다. 거기에도 대동강 변보다는 훨씬 적었지만, 많은 피난민들이 모여 있었는데 몇 척의 배가 돈을 받고 피난민들을 건너 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 많은 일행이 배를 타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 얕은 곳이 있어 벗고 건널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신부님께 "혼자서 상류로 가서 옷을 벗고 건너겠다."라고 말씀드렸다. 신부님께서는 잘 생각했다고 흔쾌히 승낙하셨다.

〈다음 호에 계속〉

배움

인문학 강좌

상선벌악과 천주가사 〈ㅅ심판가〉

김문태 힐라리오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천주교의 4대 핵심교리인 천주존재, 삼위일체, 강생구속, 이와 더불어 상선벌악(賞善罰惡)은 현세에서의 공과가 사후의 심판을 통해 내세에 실현될 것이라는 가르침이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몸으로 한 일에 따라 갚음을 받게 됩니다"(2코린 5,10).

복음화는 비신자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어 교회 공동체를 설립하는 선교, 그리고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들의 영적 생활을 돌보는 사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복음의 힘으로 모든 사람들을 내적으로 쇄신시켜 복음적 생활로 인도하는 활동까지를 폭넓게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교의 사명을 지닌 교회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초대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새로운 하느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며, 하느님 생명에 참여시키는 일을 근본 사명으로 하고 있다(『교황 바오로 6세의 권고 – 현대의 복음 선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7, 14-19항). 이에 따라 교회는 안으로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리교육을, 밖으로 비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교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의 신앙선조들이 박해시기에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천주가사를 활용하였다는 사실은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사말교리(四末教理)인 죽음 · 심판 · 천당 · 지옥을 읊은 천주가사는 초기 교회의 순교영성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 이 핵심교리를 천주가사로 작품화한 것 중의 하나가 『박동헌본』에 전해오는 〈ㅅ심판가〉다.

천주교의 4대 핵심교리인 천주존재, 삼위일체, 강생구속, 이와 더불어 상선벌악(賞善罰惡)은 현세에서의 공과가 사후의 심판을 통해 내세에 실현될 것이라는 가르침이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마태 13,29-30)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근거가 된다.

따라서 상선벌악 교리는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이 현세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심판결과에 따라 사후의 삶이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불의를 저지르는 자는 계속 불의를 저지르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이는 계속 의로운 일을 하고 거룩한 이는 계속 거룩한 채로 있어라. 보라, 내가 곧 간다. 나의 상도 가져가서 각 사람에게 자기 행실대로 갚아 주겠다."(묵시 22,11-12)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 초대받은 인간은 자

유의지에 의해 현세의 삶을 영위한다. 이어 인간은 죽음 이후에 각자 하느님 대전에서 개별심판 – 예전에는 사심판(私審判)이라 하였다. – 을 받게 된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한 자는 천당에 가고, 불완전하게 응답한 자는 연옥의 정화과정을 거치며, 단호하게 거절하며 죄를 지은 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심판, 그리고 적대자들을 삼켜 버릴 맹렬한 불에 대한 무서운 예상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히브 10,27)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개별심판의 근거는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루카 16,19-31)에 있다. 호화스럽게 살던 인색한 부자는 사후에 지옥의 불길 속에서 고통을 받았고, 가난하고 병든 라자로는 사후에 천사들의 인도로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그들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 오갈 수 없었다는 내용이 그러하다.

〈ᄉᆞ심판가〉는 4음보 92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1단락인 '놀납고도 무셥도다 심판날에 엄홈이여'로 시작되는 1-8행은 인간은 누구나 심판받을 운명이라고 노래한다. 2단락인 '삼가ᄒᆞ고 쇼심ᄒᆞ야 스ᄉᆞ로 쇽이지말쇼'로 시작되는 9-27행은 심판의 엄함을 노래한다. 3단락인 '이런싱각 미려ᄒᆞ야 엄ᄒᆞᆫ심판 보난다시'로 시작되는 28-33행은 죄의 통회와 보속을 노래한다. 4단락인 '엄ᄒᆞᆫ심판 아니밧고 텬당영복(天堂永福) 샹이로다'로 시작되는 34-45행은 마귀가 천주 대전의 심판장에 등장하여 죄인의 죄를 낱낱이 고한다. 5단락인 '참혹ᄒᆞ다 죄인이여 변빅발명(辯白發明) ᄒᆞᆯ말업셔'로 시작되는 46-82행은 수호천사가 역시 천주 대전의 심판장에 등장하여 죄인이 생시에 천주의 은혜를 저버린 사실을 낱낱이 열거한다. 천주의 자비와 인자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옥을 택한 죄인의 잘못을 부각시킨다. 6단락인 '죄범ᄒᆞᆫ자 말이업고 도망ᄒᆞᆯ길 영원이라'로 시작되는 83-92행은 만시지탄을 그린다. 결국 죄인은 마귀에게 둘러싸여 맹호와 독룡이 마중 나온 맹렬한 불길 속으로 끌려가는 처지가 된다. 보속과 통회도 죽음 이후에는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천주가사는 현세의 하느님 나라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오늘날 교회의 흐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ᄉᆞ심판가〉는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에 천주 대전에서 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운명이므로 현세에서 하느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함을 복음적 시각에서 읊은 노래다. 이 노래에서는 개별심판 후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 천당으로 가는 것보다 그 죄과로 인해 지옥으로 가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사람들이 살아 있을 때 천주의 강생구속을 굳게 믿고, 마귀의 꼬임이 아닌 수호천사의 인도에 따라 천주의 자녀로서 충실히 살아야 함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천주가사는 '심판받을 운명 – 심판의 엄함 – 죄의 통회와 보속 – 마귀의 말 – 수호천사의 말 – 만시지탄'으로 전개되고 있다. 세 번째 단락에서의 통회와 보속이 살아 있을 때 이루어졌다면, 이어지는 단락에서의 질책과 후회도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작자는 신자와 비신자가 살아 있을 때 회심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단락에서 심판의 결과 천당이 아닌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죄인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복음적 삶을 살지 않은 자의 말로를 비참하게 드러내는 것도 이러한 의도에서 야기된 것이다. 즉 이 노래의 작자는 이러한 작품구조를 통해 이 노래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현세에서의 그릇된 삶의 태도를 회개하여 복음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천주가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원고인 마귀와 증인인 수호천사가 등장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연극적 구성은 악한 자가 현세에서 저지른 죄악에 대한 질책을 보다 생동감 있게 드러내는 장치다. 이 노래의 향유자들이 개별심판을 아득한 미래의 가상적인 일이 아니라, 미구에 생생하게 마주대할 현실적인 일로 자각하게 하는 효과적인 장치인 것이다. 아울러 마귀의 말보다 수호천사의 말이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특이하다. 이는 죄인이 어떤 죄를 범하였느냐의 문제보다는 어떤 태도로 살았느냐의 문제를 더욱 중시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수난하고 십자가상에서 죽은 예수의 공은(公恩)과 사은(私恩)을 잊고 배은망덕하게 산 죄인의 마음가짐이 더 문제라는 것이다. 하느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죄인을 구하려 하지만, 인간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 그 큰 은혜를 잊고 영원한 고통만이 있는 지옥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요한 3,17)라는 말씀에 합당한 대목이다.

우리말로 창작된 〈ᄉᆞ심판가〉는 당시 한문이나 한글을 몰라 성경 · 교리서 · 신심서 등을 해독하지 못하는 신자들이나 신앙심이 깊지 않은 신자들을 교육하는 한편, 천주교를 모르는 외인들에게 전교하는 데 유용하였다. 하느님의 자비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그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는 한편, 비신자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이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노래는 이 땅의 복음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 천주가사는 현세의 하느님 나라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오늘날 교회의 흐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ᄉᆞ심판가〉는 현세 중심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현대의 신자와 비신자들에게 복음적 삶과 순교영성의 의미를 곱씹어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가 병인박해 150주년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심판의 날 '데이시스(Deisis)' 이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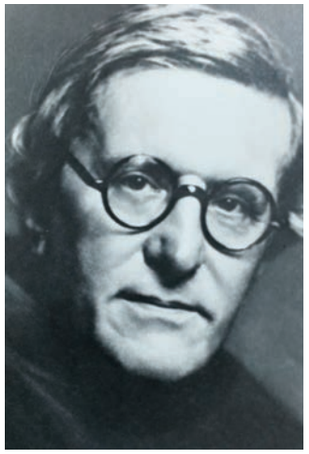
수도회 영성

그리스도 왕직 선교 재속회 성마리아 영보회

한국 그룹 양성 담당자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자기를 제물로 바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인생의 모든 것을 감사하며, 또 사랑을 위하여 배우기를 갈망하고, 완전한 사랑을 얻고 지혜를 스승으로 모실 자격을 얻기 위하여 순결하고자 한다. 그들은 많은 것을 주기 위해 평신도로서 동정 서원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잊고자 한다. 이번 호에는 한국에 진출해 있는 다섯 곳의 재속회 중에서 두 곳을 소개한다.

그리스도 왕직 선교 재속회



아고스티노 제멜리 신부
(1878~1959)

종전의 수도회와 다른 형태인 재속회의 기원은 프랑스 혁명 당시 성직자는 물론 수도복을 착용한 수도자들도 박해를 받자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던 이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세상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쇄신되기를 바라며 활동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여러 곳에서 생기기 시작하였고, 작은형제회의 아고스티노 제멜리(Agostino Gemelli 1878~1959) 신부는 이탈리아에서의 모임을 창시하였다.

항상 위대한 영성적 이상이 실현되기 위하여서는 협조자가 필요한 법이다. 제멜리 신부는 그의 이상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일생을 투신코자 하는 아르미다 바렐리(Armida Barelli 1882~1952/ 가경자이며 현재 시복 절차 중)를 만나게 되어 영적 오누이처럼 재속회의 이상을 실천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재속회를 공식 인정한 비오 12세의 교황 헌장 「섭리의 어머니이신 교회(Provida Mater Ecclesia)」를 반포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교황 비오 12세는 "세상에는 거룩한 평신도들이 많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들이 숨겨진 그리스도의 신비를 그들에게서 볼 수 있게 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해야 한다."며 재속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919년 11월 19일 두 사람은 이탈리아 아시시 성 다미아노 성당에서 다른 11명의 자매와 함께 '그리스도 왕직 선교 재속회'를 창립하였으며, 1948년 7월 12일 교황청 인준을 받게 된다. 한국에서의 역사는 정 마르가리타 자매와 더불어 시작된다. 1959년 프랑스에서 유학중이던 그녀는 대전교구의 고 백남익 디오니시오 몬시뇰로부터 본회를 소개 받았으며, 공부를 마친 후 회의 요람인 이탈리아로 가서 입회하였다.

아르미다 바렐리
(1882~1952)

1961년 12월 8일 정 마르가리타는 첫 서원을 하였고, 1962년 3월 25일 귀국과 더불어 본회도 한국에 진출하였다. 그 후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재속회의 특성으로 소수의 자매들만 오랫동안 봉헌의 길을 걸어오다가 1978년 6월, 당시 본 재속회 총장이던 알다 미첼리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조금씩 알려지게 되었다. 1999년 7월 11일 정식으로 '그리스도 왕직 선교 재속회 한국그룹'이 형성되었고 2012년 한국진출 50주년을 기념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본 회의 영성은 복음적 권고를 통하여 하느님께 봉헌되며, 우주와 역사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왕국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프란치스칸적 '작음과 형제애'로 세상의 내부에서 작용하는 누룩의 삶을 추구하고, 가난하시고 정결하시며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봉헌된 평신도 여성으로 살아간다. 교황청 설립회로서 프란치스코회 대가족에 속하며, 작은형제회로부터 영적 도움을 받는다. 고유의 사업체를 소유하지 않고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으며,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가족과 함께, 또는 독립해서 살아간다. 회원 각 개인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직업을 갖고, 교회생활의 다양한 부문에서 일하도록 권장된다.

회원은 선교사로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생활 전체가 성령에 인도되도록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영과 그 영의 거룩한 활동을 마음에 간직할 것'을 추구하도록 부름 받았다. 특히 전 인류, 그 가운데에서도 가난하고 작은이들의 수고와 불안정, 삶의 고통과 기쁨과 희망을 함께 나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과 존중을 위해 노력하고, 교회와 사회 속에서 여성의 가치를 지원하며, 문화, 정치, 사회, 교회생활에 기여한다. 진실과 정의와 평화의 봉사에 기초한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며, 모든 피조물의 보존을 위해 협조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일치와 다른 종교와의 대화를 위해 일한다.

본회는 여성회, 남성회, 사제회가 있으나, 현재 한국에는 여성회만 있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35개국에서 4,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16명의 회원이 있다. 회원들 중 5명은 은퇴하였으며, 11명의 회원이 교회기관, 대학교 및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병원에서 일한다.

본 회의 양성은 지원기 1년, 수련기 3년, 유기서원기 5년, 종신서

본 회의 영성은 복음적 권고를 통하여 하느님께 봉헌되며, 우주와 역사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왕국을 성취하는 것이다.

원의 양성 과정을 지낸다. 각 과정에는 고유한 프로그램과 만남이 있으며, 월 피정은 매월 둘째 주일에 있다. 지원기와 수련기 때는 별도의 모임이 있으며, 연 피정 기간에는 모든 회원이 함께한다. 월 피정과 연 피정, 각 과정의 양성을 위한 자료는 로마 중앙평의회에서 보내오기에 전 세계의 모든 회원은 같은 자료로 양성을 받는다.

교회법 710조는 "재속회(在俗會)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세속에 살면서 애덕의 완성을 향하여 노력하고 세상의 성화를 위하여 특히 그 안에서부터 기여하기를 힘쓰는 봉헌생활회이다."라고 정의한다. 재속회는 '새로운 천년기의 성소'라 불릴 정도로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권고할 만한 삶의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함이 사실이다. 신자들은 여전히 성소를 사제, 수도자라는 두 가지 형태로만 인식하고, 봉헌생활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그러기에 본 회 회원들은 "하느님의 나라가 열정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모든 수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창설자의 말씀을 오늘도 되새기며, 새로운 성소를 찾는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어떤 특전도 바라지 않고 봉헌된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누룩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삶이 곧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재속 성소를 찾고 있는 이들을 재촉하여 또 다른 봉헌의 삶인 이 길에 들어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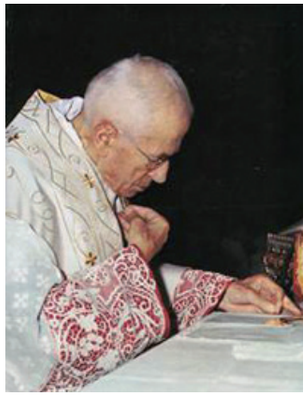
주소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3 106호 (정동APT)

문의 : 한국 그룹 책임자 010. 4826. 7400
한국 그룹 양성 담당자 010. 6372. 4404

나는 항상 여러분들과
깊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 성심과,
뛰어난 사도의 전례이신
프란치스코 성인께 청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그렇게
선한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사도들이기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사도들이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자매들이여!

– 아르미다 바렐리

성마리아 영보회(재속 봉헌생활회)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
(1884~1971)

"성마리아 영보회 회원은 세상 안에서 살며, 세상 안에서 봉헌된 이들입니다."

바오로 가족의 창립자이신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1884~1971)는 새 시대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사도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이방인의 사도인 성 바오로의 보호 아래 사회 홍보수단을 통한 복음 전파를 자신의 소명으로 생각하여 1914년 8월 20일에 알바에서 전셋집을 빌려 '작은 노동자 인쇄학교'를 시작함으로써 최초로 성바오로수도회를 창립하셨다. 신부님은 5개의 수도회(성바오로수도회, 성바오로딸수도회, 스승예수 제자 수녀회, 선한목자 예수수녀회, 사도의 모후 수녀회)와 4개의 재속회(예수사제회, 성마리아 영보회, 대천사 가브리엘회, 성가정회), 그리고 협력자회 등 10개의 바오로 가족을 창설하셨다.

이 중에서 성마리아 영보회(Annunziatine)는 1958년 창설되었고, 1960년 교황 요한 23세의 인가를 받았다. 영보회는 특별히 젊은 독신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회로서, 성모 마리아께서 가브리엘 천사의 고하심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파하셨음을 의미하고, 구현하는 재속봉헌생활회(재속회)이다. 로마에 본부가 있으며, 22개의 나라에서 700명가량의 회원들이 활동 중이고, 한국에는 1983년에 도입되었다.

회원들은 사회 안에서, 자신의 일터에 머물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를 현대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헌신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다. 각자의 가능성과 능력에 따라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살아간다.

즉, 자유롭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세상 안에 깊이 침투하여 그리스도교적 정신을 증거하는 것이다. 자신의 선교활동을 밝히지 않으면서 온전히 바오로적 사도직에 봉사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그럼으로써 사제나 수도자들이 할 수 없는 역할도 하게 된다.

학교에서는 젊은이들에게 인간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 교사로서 헌신하거나, 회사에서는 일을 통해 만나는 모든 이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교적인 사랑을 증거하며, 서원에서는 매스컴 수단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등등의 고유한 바오로적 사도직분을 통해 사제직의 열의에 참여한다. 익명의 숨은 봉사자로서, 소금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맛을 내고, 누룩처럼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고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것이 회원들의 소명이며, 각자는 이러한 소박한 소명의 실천을

영보회는 특별히 젊은 독신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회로서, 성모 마리아께서 가브리엘 천사의 고하심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파하셨음을 의미하고, 구현하는 봉헌생활회(재속회)이다.

통해 높은 이상을 향하여 자신의 성화를 이루고자 노력한다.

영보회는 성바오로수도회에 속해 있고, 복음적 권고인 3대 수도서원(정결, 가난, 순명)을 통해 주님께 봉헌된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기(1년), 청원기(1년), 수련기(2년), 유기서원기간(5년)을 가지면서 많은 체험을 한 뒤에 종신서원으로 주님께 결정적인 응답을 드리는 회원들은 소명과 복음적 이상의 실현을 위해 기도를 수도생활의 첫 자리에 두고 있다. 기도는 그리스도교 영성의 원천이며, 특히 하느님의 말씀과 전례 안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한 힘을 길어 내기 때문이다.

회원들은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기 위하여 성바오로수도회로부터 필요한 영적 도움과 지도를 받고, 바오로 가족들과 똑같은 영적 선과 특권을 받기에 선종 후에 많은 기도의 혜택을 받게 되어 위에서 언급한 바오로 가족 안에서의 사랑의 일치와 유대를 영원히 이어가게 된다.

성마리아 영보회 회원들은 한 달에 한 번 월모임을 가지며, 한 달에 1일 월피정을 하고 매일 미사 참례하고 하루에 한 시간씩 성체조배를 함으로써 영성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받고 앞으로 걸어가기 위한 지탱과 동반을 받는다. 회원들은 형제적 친교 안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서로 나누며, 특히 강력한 기도와 은총의 순간인 대피정(일 년에 7일)을 통해 영적 삶의 체험을 심화함으로써 모든 회원들은 더욱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 http://cafe.daum.net/annunziatine(질그릇에 담긴 보물)

영화 속 '인간과 세상'

누군가에게 조종당한다는 것은? 컨트롤러

이대현 요나 국민대 겸임교수 · 영화평론가

"나의, 아니면 저 사람의 삶이 누군가에 의해 모두 조종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SF, 액션, 로맨스/멜로
2011.03.03 개봉 | 12세이상관람가
105분 | 감독 조지 놀피

할 말을 잊게 하는, 뻔뻔한 거짓말과 고대 무속 신화 같은 막장 드라마가 그것도,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펼쳐지고 있는 2016년 가을의 대한민국. 어떤 소설과 영화가 이보다 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아무리 제멋대로라지만 상상력도 '상식'과 '보편적 가치' 위에서나 가능한 법.

이런 참담한 현실 때문에 새삼 떠올린 영화 〈컨트롤러〉. 살아가면서 당신은 한 번쯤 이런 의문을 품어 본 적이 있는가. "나의, 아니면 저 사람의 삶이 누군가에 의해 모두 조종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많은 영화가 "그럴지도 모르지."라고 이야기한다. 게임의 주인공이 되어 화면 속에 들어가 전투를 펼치는 '모션 컨트롤러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인간의 감정까지 읽어내 조종하는 '이모션 컨트롤러 시대'이다. 누군가 내 꿈속에 들어와 조작하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해질 수 있다.

아예 존재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강탈당하는 〈본 아이덴티티〉와 〈언노운〉 같은 영화들도 있다. 물론 상상이지만 자신 있게 허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신 없다. 지금은 더더욱. 단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 지금 우리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인 나라에 살고 있다.

이런 영화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 되묻는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누군가 내 삶을 침범하지 않을까 불안하다. 그 불안은 어떤 존재가 내 삶을 모두 조종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으로 연결된다. 〈인셉션〉처럼 꿈속에서 다시 꿈을 꾸고, 꿈속의 상황을 누군가 조작하는 일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지만,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내 꿈까지 조종하고 있다는 느낌.

데이비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순순히 그들을 따라 대통령이 되는 안전한 성공의 미래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온갖 방해공작으로 실패할 확률이 큰 위험한 사랑을 고집할 것인가.

삶이 자유의지의 산물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군가에 의해 자신의 삶이 조종당하는 것을 끔찍이 싫어한다. 조지 놀피 감독의 〈컨트롤러〉도 그런 인물이 주인공이다.

이 영화의 원작인 〈조종팀〉을 쓴 필립 K. 딕은 아이작 아시모프처럼 외계인의 존재나 우주전쟁, 로봇이 지배하는 세상을 상상하지는 않는다. SF명작으로 꼽히는 리틀리 스콧 감독의 〈블레이드 러너〉의 원작인 소설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을 꿈꾸는가〉나 영화 〈토탈리콜〉의 원작인 〈도매가로 기억을 팝니다〉 등에서 보듯, 그는 전쟁이나 오염으로 삶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이야기한다.

소설 〈조종팀〉도 마찬가지다. 조정국의 요원들이 자신들만의 비밀통로를 통해 공간이동을 하면서 주인공의 일과 사랑, 미래를 감시하며 그의 행동을 조종하고 통제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빼고는 특별하지 않다. 냉혹하거나 잔인하지 않고 실수도 하고 인간적인 감정도 드러낸다.

조지 놀피 감독은 이 소설을 더 극적인 영화로 만들기 위해 보험회사 세일즈맨인 주인공을 장래가 유망한 젊은 하원의원 데이비드(맷 데이먼)로 바꾸고, 무용수 엘리스(에밀리 블런트)를 등장시켜 일과 사랑 사이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시험했다.

그 시험은 선거운동 도중에 학창시절 악행이 밝혀져 낙선이 확실시되자 패배 연설을 준비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데이비드가 엘리스를 보고 첫눈에 반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물론 조정국에서 계획한 '단 한번 만남'이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엘리스와 다시 만나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지만 뭔가 잘 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방해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그 느낌은 맞다. 데이비드와 엘리스 사이의 사랑은 조정국이 계획한 미래가 아니기 때문이다. 누구라도 자유의지를 고집해 자신들이 만든 미래 설계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요원들이 즉각 나타나 우연을 가장해 제자리로 돌려 놓는다. 데이비드에

게도 그렇게 했다. 그런데 아뿔싸! 요원의 실수로 데이비드와 엘리스는 다시 만나고, 둘은 사랑의 감정을 확인한다.

그러자 조정국 요원들이 데이비드 앞에 직접 나타나 자신들의 존재를 설명하고는 '계획된 미래'로 가도록 강요한다. 엘리스와의 만남은 물론이고 과거 부모의 죽음, 대학진학과 정치적 성공과 실패, 심지어 친구들까지 그들의 조종에 의한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된 데이비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순순히 그들을 따라 대통령이 되는 안전한 성공의 미래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온갖 방해공작으로 실패할 확률이 큰 위험한 사랑을 고집할 것인가. 그는 고민한다.

데이비드는 우리를 대신해 인간의 진정한 존재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 주려 했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는 것이다. 나는 내 운명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난 그녀를 선택했다."고 소리친다. 조정국이 최후의 방법으로 엘리스의 미래를 가지고 데이비드를 협박하지만, 진정 그녀를 사랑하는 그의 마음까지 바꾸지는 못한다. 그 마음으로 인간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존재이니까.

〈컨트롤러〉는 왜 누군가가 사람의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하나하나 계획하고 통제한다고 상상했을까. 일종의 인간사회에 대한 비판이자, 자유의지에 대한 불신이다. 인간은 그동안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쟁과 학살, 부패와 차별을 반복한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이성으로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인간은 여전히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는 미숙한 존재이지만, 스스로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사랑'이다. 순수한 마음과 의지로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자유의지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은 로봇이나 인형과 다름없다. 그래서 누군가 그것을 뺏으려 한다면 그가 외계인이든, 초능력을 가진 조정자든, 사이비 교주든 데이비드처럼 용감히 맞서 지켜야 한다. 그들이야말로 '악마'의 다른 모습이며, 인간의 삶과 미래는 자신이 직접 계획하고 만들어야 가치가 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이 아닌,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로 창조하셨다.

대한민국을 분노와 절망과 치욕에 빠뜨린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도 결국 사악한 '컨트롤러'와 그 밑에서 자유의지를 포기한 대통령과 하수인들의 짓이다. 그렇게 외치던,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그나마 그 자유의지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살아 있음이 다행스럽고, 자랑스럽다.

영화음악 세상

코러스 *Les Choristes*(2004)

정성엽 바오로 작곡가

각자 상처를 지닌 소년들에게 한 음악 선생님이 임시직 교사로 부임해 온다.

크리스토퍼 파라티에 감독
제라르 쥐노 주연
브루노 콜라 음악감독

뉴욕의 성공한 교향악단의 지휘자가 프랑스로부터 어머니의 부고에 대한 한 통의 전화를 받고 프랑스에 오게 된다. 이 소식을 들은 옛날의 친구 페피노가 찾아오고 낡은 일기장을 건네면서 영화는 시작한다. 이들은 어린 시절 한 위탁시설에서 같이 자란 친구들. 이곳에 한 선생님이 부임하면서 생긴 일들을 회상으로 전개해 간다.

모헝쥐와 페피노는 60여 년 전 여름, 한 대머리 선생과의 인연을 기억해 내는데 그 선생님의 이름은 바로 마티유.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 시골의 작은 위탁 기숙사인 Fond de l'Etang(연못바닥). 여기는 토요일만 되면 항상 아빠를 기다리는 전쟁고아 페피노 그리고 아빠의 부재 속에서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말썽을 일으키는 사춘기 소년 모헝쥐 등 많은 소년들이 같이 생활하는 곳이다.

이런 각자 상처를 지닌 소년들에게 한 음악 선생님이 임시직 교사로 부임해 온다. 선생님의 첫날은 역시 쉽지 않았다. 남자 아이들의 짓궂은 장난과 교장선생의 비인간적인 엄한 체벌과 강압적인 교육방식. 험난한 미래를 예고하는 듯했으나 이 선생님은 그럼에도 그곳에서 희망의 씨앗을 발견한다. 우연히 취침시간에 아이들의 흥얼거리는 노랫소리. 그것은 바로 이 상처받은 아이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한때 다시는 작곡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지만 애들에게 음악이라는 새로운 위로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 그동안 접었던 오선지를 꺼내어 아이들을 위한 합창곡을 작곡하기로 결심한다.

음악이라는 새로운 것을 접한 아이들. 각자의 파트를 연습해

마침내 하나로 합쳐져 하모니를 형성할 때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에 빠지게 된 소년들은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되고 이어 매일 밤낮 함께 합창을 하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외로움 대신 즐거움이 찾아온다. 삭막하고 비인간적이던 작은 시골의 기숙사에는 점차 음악이라는 선물로 따스하게 변하게 되는데….

한편 금전에 관련된 누명을 뒤집어쓴 몽당이라는 소년이 예기치 못한 사건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고 이곳에는 잠시 찾아온 평화가 깨지게 된다. 열정과 순수한 사랑으로 위탁된 소년들에게 합창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 마티유 선생님. 그리고 짧은 만남에 이은 이별. 영화는 이렇게 마치는 듯했으나 마지막 장면은 선생님이 가는 길에 페피노가 동행하며 선생님의 따뜻한 인간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야기를 마친다.

이 영화는 소년 합창이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점점 삭막해져 가는 세상에 희망과 인간애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미 세자르상 음악상과 사운드상, 유럽 영화상 작곡상 등 굵직한 상을 거머쥐고 흥행에서도 큰 성공을 거둔 이른바 두 마리의 토끼, 예술성과 흥행성을 다 갖춘 보기 드문 수작이라 할 수 있다.

영화에 삽입된 합창곡들은 실제 성 마르코(Saint Marc) 합창단 소속의 단원들이 불렀으며 이는 영화에서 주인공인 모헝쥐 역할을 한 장 바티스트 모니에가 소속된 합창단이기도 하다. 이 밖에 세계적으로 알려진 소년 합창단은 파리 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과 빈 소년 합창단이 있다.

먼저 파리 나무십자가 합창단은 나무십자가 소년 합창단이라고도 불리며 10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8세부터 15세 사이의 총 100명의 소년들로 구성된 세계적인 아카펠라 소년 합창단이다. 합창단 기원은 1907년에 파리의 보리라르 지구의 가난한 어린이들로 조직된 작은 동네 합창단이었고, 원래는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종교음악을 가르치는 것이 창립 목적이었다. 그러나 1931년 미국 뉴욕 카네기홀에서의 공연으로 세계 언론과 관객들에게 큰 주목을 받으며 명성을 얻었고 차차 유명해져서 그 뒤로는 전문 합창단으로 활약하게 되었다고 한다. 단원들은 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전반은 흰 수도복을 입고 목에 나무십자가를 걸고 종교음악을 부르고, 후반은 유니폼을 입고 세속적인 곡을 부르는 것이 순서로 되어 있다. 파리 나무십자가 소년 합창단이 일반적인 소년 합창단과 다른 점은, 어른이 몇 명 가담하여 낮은 음을 확보 · 지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편곡이 필요 없고 원곡대로 부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변성기 전의 어린 소년들이 소프라노와 알토를, 변성기를 지난 소년들이 테너와 베이스를 맡아 노래하므로, 합창의 형식은 남성4부 합창이지만 실제로는 혼성합창의 소리를 낸다(위키피디아 참조).

파리 나무십자가 소년 합창단

빈 소년 합창단

한편 500년 넘는 역사를 지닌 세계 최고의 소년 합창단이자 역사상 처음으로 동양인 여성 더군다나 우리나라 여성이 지휘자로 임명되어 화제를 낳았던 빈 소년 합창단 또한 빠질 수 없는 소년 합창단이다. 이렇게 긴 역사를 지닌 세계 최고의 합창단에 그가 지휘자로 발탁되었다는 것은 음악계의 대단한 희소식이었다. 그는 다름 아닌 김보미 교수, 현재는 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음악사 책에 등장하는 많은 위대한 작곡가들이를 테면 요한 세바스찬 바흐,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 프란츠 조셉 하이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루드비히 판 베토벤과 프란츠 슈베르트 등이 이 합창단 출신이라고 하면 아마 그 명성을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빈 소년 합창단은 오스트리아 빈에 기반을 둔 보이 소프라노와 보이 알토(알토)의 합창단이다. 기원은 1498년 합스부르크 왕가의 황제 막시밀리안 1세의 칙령에 의해 설립된 궁정소년합창단이며, 최초에는 궁정예배당에 봉사하는 합창단이었으나, 차차 일반의 콘서트에도 출연하게 되었다. 20세기 초 합스부르크 왕가의 몰락 이후 민영체제로 전환되었다.

단원은 대체로 7세부터 13세까지의 변성기 전의 100명 남짓한 소년으로 이루어졌으며 엄격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문과 음악을 공부한다. 30명 정도로 편성된 4개의 그룹이 있는데, 그 중 3개는 해외에서 활동하며 나머지 하나가 예배나 콘서트 등에 출연한다고 한다(위키피디아 참조).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 삽입된 유명한 대표곡들은 Cerf-Volant(원래는 '연'이라는 뜻이나 이 영화에서의 뉘앙스로 봐서 종이비행기가 옳다)과 Caresse Sur l'ocean(바다의 손길), La nuit(밤)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곡이면서 떠나는 마티유 선생님의 발걸음과 동행하는 노래인 Cerf-volant의 가사로 글을 마치고자 한다.

Cerf-volant/ Volant au vent/ Ne t'arrête pas/ Vers la mer/ Haut dans les airs/ Un enfant te voit/ Voyage insolent/ Troubles enivrants/ Amours innocents/ Suivent ta voie/ Suivent ta voie/ En Volant.

종이비행기/ 바람에 날리는데/ 멈추지 말아다오/ 바다를 향해/ 하늘 높이/ 한 소년이 너를 바라본다/ 비상한 여행/ 상기된 불안함들이여/ 순수한 사랑들이여/ 너의 길을 따라가리/ 너의 길을 따라가리/ 날아가면서.

평신도 양서

정리
류주희 편집위원

토마시 할리크 지음
최문희 옮김/ 분도출판사
150×215/ 264면/ 15,000원

하느님을 기다리는 시간

– 자캐오에게 말을 건네다
Vzdáleným Nabízku(Patience with God)

2014년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한 신학자 토마시 할리크가 신앙과 불신앙의 논쟁에 대해 말한다. 신앙과 불신앙의 주된 차이를 인내로 풀어내는 저자는 '하느님 없는 세상'을 뼈저리게 체험하지 않고는 '하느님을 참고 기다리는 일'과 그 인내의 세 얼굴인 믿음 · 희망 · 사랑에 대한 모든 의미를 깨닫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신의 침묵'이라는 체험을 자기 안에 녹여내야 만이 성숙한 신앙에 이른다는 것이다. 우리 안의 자캐오에게 말을 건네는 이 책은 확고한 믿음으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의 이면도 짚어낸다.

발터 카스퍼 지음
김혁태 옮김/ 생활성서사
129×189/ 192면/ 12,000원

사람아, 그대의 품위를 깨달으라

세계적인 신학자 발터 카스퍼 추기경의 대림 성탄 특강인 이 책은 그리스도인의 실존이 일생 동안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대림 시기의 사람'임을 일깨워 준다. 대림과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묵상하고 깨달아 바르게 실천하도록 이끄는 저자의 영성을 만날 수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깊이 새겨주며 이 시대의 실질적 사건들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부록으로 은총성경쓰기가 있다.

공지영 외 지음
서교출판사
137×198/ 208면/ 12,000원

당신 있어 비로소 행복한 세상

우리 시대 최고 지성 6인의 영혼의 울림

공지영, 유안진, 한비야, 구수환, 이정숙, 차동엽 등 방송, 문학, 언론, 종교 각 분야 최고로 손꼽히는 6인이 자신만의 입지를 구축하기까지 과정 중에서도 무수한 실패, 아픔과 시련에 대한 크고 작은 팩트를 바탕으로 가톨릭독서콘서트에서 강연한 내용을 에세이 단행본으로 엮었다. 강연 중 저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살려 구어체 방식으로 서술했다. 사랑과 긍정 에너지는 물론 절망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발견하는 마음가짐, 역경을 기회로 승화해 어둠을 뚫고 정진하는 저자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 무엇인가 깨닫게 된다.

마우리치오 미릴리 지음
박미애 옮김/ 바오로딸
145×170/ 768면/ 23,000원

걱정말아요 365일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한 젊은이와 만남이 계기가 돼 쓰기 시작한 저자의 글이 365일 이어져 한 권의 책이 됐다. 성경 말씀 속에 두려움을 똑바로 마주보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매일의 묵상을 통해 알려준다. 하루에 한 가지씩 두려움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삶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대하고, 일상의 다양한 두려움을 하느님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날마다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용기를 갖고 도전하면서 삶의 자리를 찾으려 애쓰는 청년들을 격려하는 희망의 핸드북이다.

최강 지음
가톨릭출판사
140×205/ 280면/ 12,000원

너라도 끝까지 걸어야 한다

최강 신부의 영성 에세이

한국외방선교회 소속 멕시코 선교 사제 최강 신부가 펴낸 영성 에세이로 선교 사제로서 삶 안에서 '교회의 길, 사제의 길, 신앙의 길'을 찾기 위한 저자의 고민과 깊은 묵상을 만날 수 있다. 더 사랑하기 위해 더 홀로 있어야 하고 더 가지기 위해 더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일상의 사건 속에 담아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희망을 놓치지 않는 신앙의 길은 고독과 결핍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일상에서 발견하는 행복의 길을 생생하게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인다운 삶과 사랑에 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안드레아 가스파리노 지음
작은 자매 관상 선교회 옮김/ 성바오로
153×225/ 368면/ 15,000원

주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더 깊게 하느님과 일치하고자 기도하는 이들에게 선물이 되는 기도 지침서이다. 저자는 기도의 '문간'에서 만족하지 않고 하느님을 만나는 곳인 '성전' 자체에 들어가도록 과감하게 초대한다. 이 책은 4주 동안 점진적으로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기도의 중요성, 소리 기도, 듣는 기도, 마음의 기도에 대해 설명하고 실습하도록 이끈다. 매일 기도하기 위한 분위기를 생생하게 보존하도록 시편에서 뽑은 간청 기도도 실었다. 기도의 본질적 요소는 많이 생각하는 데에 있지 않고 많이 사랑하는 데에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축시

답게 살기 위하여

이해인 클라우디아 수녀/ 시인

너는 너답게 나는 나답게
그래서 우리 모두
〈답게〉 살자고 마음 모아 기도하고
소리 내어 외쳐보기도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왜 자꾸 숨고 싶어지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답게〉 살라고
먼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자꾸만 고개를 숙이고 싶어지는 오늘
그래도 우리 함께 모여
각자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나누면
덜 부끄러울 것 같지 않나요?
다시 잘 해보자고 함께 다짐을 하면
없던 힘도 샘솟을 것 같지 않나요?

〈답게〉 사는 길로 가는 순례의 길에서
완벽함의 모델이신 예수님처럼 성모님처럼
한 번 더 참아내는 절제를 배우고
한 번 더 양보하는 배려를 배우고
한 번 더 희생하는 사랑을 배우며
꾸준히 선을 실천하는 용기를 지닌다면
〈답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답기 위해 필요한 눈물도 흘리고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시련도 극복하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답게〉 사는 연습을
다시 하기로 해요
〈답게〉 살아서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며
함께 노력하는 우정의 도반들이 되기로 해요

지금껏 살아온 날들을 함께 고마워하는 우리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함께 설계하면서
가족 친지 이웃을 불러 모아
오직 사랑 안에서
복을 짓고 복을 나누는 기적을 만들기로 해요
〈답게〉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으로 깨어 사는
믿음의 형제들이 되기로 해요

작지만 아름다운 우리나라
동서남북 방방곡곡에서
사랑의 웃음소리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답게〉 살아야지요
이기심을 버리고
더 순하고 겸손하게
다른 이를 함부로 판단하는
편협하고 차가운 눈길을 거두고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답게〉 살아야지요

선한 마음 갈고 닦고
밝은 웃음 꽃피우며
고운 말씨로 격려하면서
부지런한 발걸음으로
함께 길을 가요, 우리
함께 힘차게 나아가요, 우리

서로 먼저 일상의 삶에서 실천하는
〈답게〉의 영성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마침내는
모든 이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2016.9.23.)

휴식

원주교구 용소막본당 황둔공소

촬영
문수영 토마스 서울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회원

용소막성당은 원주시 신림면에 있는 작은 성당으로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6호로 지정된 곳으로, 풍수원성당, 원주성당에 이어 강원도에 세 번째로 설립된 성당이다.

용소막본당 소속인 황둔공소는 1958년 초대회장인 심흥도 교우집(신림면 송계리)에서 황둔공소를 창립하였다. 그 후 황둔장터에 대지 70평의 초가 2동을 매입(1969.1.20)하고 수리하여 강당으로 건립(1969.4.16), 공소로 사용하다가 처분하였고, 1989년 김차순 로사 자매가 기증한 대지 77평에 20평가량의 공소 건물을 기공하여(1990.5.21) 곽호일 신부 주관으로 첫 미사를 봉헌하였으며(1990.11.18.), 원주교구 설정 25주년 기념으로 강당을 건립하여 김지석 주교의 집전과 지학순 주교의 배석으로 축복식을 갖게 되었다(1991.4.5).

공소건물이 협소하여 2003년 4월에 증축공사를 시작으로 20평 건물을 현재의 41평으로 확장하였으며, 같은 해 6월 19일 준공, 7월 17일 완공하여 김지석 주교 집전으로 축복미사를 갖게 되었다. 2010년 10월에 교육관 46평을 신축하여 도시 신자들의 피정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다.

• 소재지: 강원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 본당: 용소막본당 • 전화: 033. 764. 2128(황둔공소)

소식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범종단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대토론회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이하 '한국평협') 권길중 회장과 교구평협 회장을 포함한 한국평협 임원 21명은 9월 23~24일, 전남 영광 원불교 국제 마음 훈련원에서 범종단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중앙추진본부가 주최한 범종단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첫째 날은 「답게」 운동의 가치를 김성곤 전 국회의원(원불교)이 기조연설을 통해 되짚어 주었고 이어진 한국평협 박철용 사무총장의 강의에선 「답게」 운동의 향후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각 종단에서 온 참석자들은 소그룹 토의를 통해 일반인들이 일상생활 안에서 「답게」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둘째 날은 다짐의식을 통해 참석자들의 '답게' 살겠다는 의지를 되새기며 각자의 종단에 널리 알려야 할 토론회의 결과물과 실천 방안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대토론회에 참석한 한국평협 김정숙 가정생명위원장은 「답게」 운동은 타인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기에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다짐 없이는 늘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새롭게 다짐해야 한다고 참가 소감을 발표했다.

• 제49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와 포스터 제작

한국평협은 11월 13일 제49회 평신도주일을 맞아 '자비의 실천으로 인내하며 생명을 얻읍시다.'라는 제목으로 강론자료와 포스터를 제작했다. 강론의 내용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강조하는 평신도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고유한 삶의 자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할 곳이라는 것을 상기하며 교회와 세상 속에서도 평신도 사도직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당부

하는 것이었다. 강론자료와 포스터는 평신도주일 즈음에 전국 각 본당에 배포하였으며, 한국평협 누리집(www.clak.or.kr)에 게재하였다.

• 한국평협 2016년 추계 상임위원회 개최 평협 5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결성

한국평협은 11월 25~26일 1박 2일간 마산 가톨릭

교육관에서 추계 상임위원회를 가졌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안상덕, 담당사제 황병석, 이하 '마산평협')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상임위원회는 2016년 후반기 교구별 활동 나눔을 진행하였고, 2018년 7월 한국평협 창립 50주년 기념사업 준비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2017년도 사업계획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내년도 총회를 통해 상정하기로 했다.

16개 교구평협 중 15개 평협과 2개 상임단체장. 한국평협 임원 등 57명이 참석한 회의에 개막미사를 집전한 마산교구 배기현 주교는 "평신도주일을 지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끝으로 의미가 바뀌고 시간이 바뀐다."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시대의 징표를 읽어야 하고, 세상의 문제를 성서의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이해해야 한다. 하느님께서는 현재 어려운 대한민국 속에서 우리 신자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론했다.

이어진 특강에서 배 주교는 사제의 어원은 '거룩함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천주교 신자로서 거룩함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아버지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느님 앞에서 겸허하게 사는 것이 천주교 신자로서 사명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이며 '평신도 사명'이란 주제를 배 주교의 어린 시절과 깨달음의 경험을 바탕으로 친근하고 알기 쉬운 강의로 마무리되었다.

둘째 날은 '병인박해 순교자 증언록'에 나오는 마산교구 출신 정서방 순교자가 불안과 고통 속에서 숱하게 거닐던 남해 바다 둘레길을 걸으며 그분의 얼을 잠시나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파견미사를 집전한 마산평협 담당사제 황병석 신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깨어 기도하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이라며 "매일 일상 안에서 종말과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는 내가 지니고 있는 모습이 어떻든 간에 그대로의 모습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고 강론했다.

●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실상을 다룬 영화 '귀향' 조정래 감독 제33회 가톨릭대상 문화부문에 선정

한국평협은 11월 25일 제33회 가톨릭대상 최종 심사회의를 열고 사랑부문에 40년간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해온 조봉숙 간호사, 문화부문에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제작하여 세상에 알린 조정래 감독, 정의평화부문에 24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해 온 여성운동가 김선실 관장을 각각 선정하였다. 돌아오는 12월 13일 6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982년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복음적 활동으로 현세질서의 개선에 이바지한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인간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가톨릭대상은 매년 사랑부문, 문화부문, 정화평화부문 등 3개 부문에 걸쳐 뛰어난 활동으로 세상을 변화하는 데에 열정을 다해 온 인사들을 종파와 종교를 가리지 않고 선정해 시상해 왔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제13회 사랑 · 생명 · 가정 사진공모전 시상식 개최 – 대상에 정극주 씨 「소풍가는 날」

올해로 열두 번째를 맞는 사랑 · 생명 · 가정 사진공모전 시상식이 11월 2일 서울 명동 1898갤러리에서 열렸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권길중, 담당사제 조성풍, 이하 '서울평협')가 주최하고 가톨릭사진가회(회장 유동희)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54점의 출품작 가운데 뽑힌 50여 점의 입상작이 이날부터 11월 7일까지 전시됐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신구대학교 사진영상 미디어과 김효식 교수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사진이 우리 일상과 늘 같이하게 되었지만 어떤 주제를 찾아 기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많은 응모사진들이 훌륭하게 표현한 사랑과 그 안에 녹아 있는 가족애를 보면서 사랑은 역시 먼 곳에 있거나 거창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라고 심사소감을 밝히면서 "촬영의 기술적인 부분뿐 아니라 완성도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상을 받은 정극주 씨는 가톨릭 영 시니어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우연히 아이들의 모습을 포착해 촬영했는데 상까지 받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에 함께한 서울평협 담당사제 조성풍 신부는 "대상을 받은 분이 가톨릭 영 시니어 아카데미 졸업생이라 더 반가웠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분들이 공모전에 함께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대전교구 '자살 예방의 날' 생명캠페인 행사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박원규, 담당사제 김명현, 이하 ' 대전평단협')는 9월 7일 천안시청에서 자살 예방의 날 기념행사인 "생명사랑문화제"에 참가하여, 장기기증 희망신청 및 생명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희망, 날개를 달다'를 주제로 생명사랑 인식 확산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충청남도 정무부지사와 천안시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개되었다.

• 2016 카리타스 한생명대축제 개최

10월 8일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운동장과 강의실에서 대전평단협 주관으로 생명 나눔 축제인 '카리타스 한생명대축제'가 열렸다. 대전교구장 유흥식 라자로 주교 주례로 생명수호미사가 진행되었다. 유 주교는 장기기증 서약을 한 신자들을 격려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론하였다. 이어 생명수호 선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헌혈, 장기기증, 조혈모세포 희망기증에 관한 생명나눔 부스와 생명수호캠페인 홍보 부스를 마련하였다. 장기기증 서약을 한 참가자들을 초청하여 점심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하는 장을 열며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이끌었다.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인천교구 한가위 위령미사

9월 14일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곽하형, 담당사제 오용호, 이하 '인천평협') 주관으로 백석하늘의 문 묘원에서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와 교구 사제단이, 마전동 묘원에서는 사무처장 오용호 신부의 주례로 신자 약 3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헌되었다.

• 병인순교 150주년 기념 순교자성월 순교자현양대회

인천평협은 9월 20일 갑곶순교성지에서 2,000여 명의 신자들이 모인 가운데 병인순교 150주년 기념 순교자성월 순교자현양대회를 열었다. 신자들과 교구 사제단은 인천평협 주관으로 강화 용진진에서 출발하여 강화 갑곶순교성지까지 십자가와 103위 순교 성인기를 들고 순교자 현양 도보 순례를 했다. 강화 갑곶성지에 도착하여 고해성사를 한 후 정신철 주교와 교구 사제단 집전으로 순교자현양미사를 봉헌하였다.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아프리카 남수단 아강그리알 성전 신축을 위한 자비와 사랑 나눔 바자회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윤광열, 담당사제 이근덕, 이하 '수원평협')는 10월 15일 교구청 마당에서 아프리카 남수단에 위치한 아강그리알에 성전을 봉헌하기 위한 자비와 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하였다. 교구민의 일치와 자비의 실천사항으로 지난

2월 인천평협에서 안건이 상정되어 8개월에 걸쳐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이번 '사랑 나눔 바자회'는 22개 사도직단체 봉사자들의 일치와 교구민의 참여로 성황리에 진행되었고 오전 말미에 총대리 이성효 주교의 주례로 미사가 봉헌되었다.

수원교구 신자 및 일반인 약 3,000여 명이 함께한 이 바자회를 통해 1억 2천 5백만 원이 모아졌고, 수원평협 회장단은 11월 3일 교구청을 방문해 이성효 주교와 복음화국장 이근덕 신부가 함께한 자리에서 '남수단 아강그리알 성당 신축금"으로 바자회 수익금 전액을 전달했다.

• 2016 하반기 총회장 연수

수원평협은 10월 22일 교구청 지하 강당에서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라는 주제로 140여 개 본당 총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 하반기 총회장 연수'를 개최하였다.

이날 연수는 복음화국장 이근덕 신부의 2017년 교구장 사목교서 설명, 복음화국부국장 강희재 신부의 소공동체 중심의 사목에 관하여, 청소년국장 박경민 신부의 청소년사목의 진단과 해법에 대한 강의가 이어진 뒤, 교구장 이용훈 주교의 파견 미사로 마무리가 되었다.

이용훈 주교는 2013년 교구 설정 50주년을 기념하며 교구의 영적 성장을 목표로 정한 '소통과 참여로 그리스도인으로 쇄신'이, 2017년에는 그 마지막 축을 완성하는 '쇄신'을 주제로 살게 되었다면서, '쇄신'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행동하고, 성사의 거룩한 은총 속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강론하였다.

• 수원평협 임원 성지순례

11월 5일 수원평협은 이근덕 영성지도신부와 함께 천진암성지로 '평협 임원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교구청에서 아침 일찍 출발하여 12시 성지미사를 드리고 근처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성인 묘역을 참배하고 교구청으로 돌아와 11월 임원회의를 하였다.

가는 비가 내리는 이날 물기를 머금은 단풍이 최절정을 이뤄 순례객에게 멋진 볼거리와 순교자의 깊은 영성을 느끼게 한 뜻깊은 날이 되었다.

• 수원평협 성지순례

수원평협은 11월 19일 영성지도신부와 단체 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이성지로 순례를 다녀

왔다.

11월 위령성월을 맞아 순교자 묘지참배 및 주님의 수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고, 미사참례를 한 후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교구청으로 돌아왔다.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2016년도 제3회 정기총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한효수 바오로, 담당사제 이재화)는 11월 12일 의정부교구청 3층 중회의실에서 교구 단체장들이 모인 가운데, '2016년도 제3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한효수 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오늘 정기총회에 참석한 분들께 감사드린다. 지난 1년 동안 어려움이 많았지만 평단협 단체장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한 해를 잘 마무리했다. 앞으로도 의정부교구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평신도사도직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뜻을 밝혔다. 이재화 담당신부의 2017년도 사목지침서 교육에서, 2014년 대림주일을 시작하면서 발표된 이 신부의 사목서한(착한 목자)은 보편교회의 흐름에 맞추어 우리 교구의 향후 10년간의 사목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올해도 이 큰 흐름 아래 각 분야의 단체들이 긴밀히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전하였다. 교구장 이기헌 주교는 파견미사 강론을 통해, 사제와 수녀, 평신도사도직 단체장들이 함께 뭉쳐진 협력사목이 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본다며, 국내외 평신도 단체들과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평신도사도직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총회는 ▲성원 보고, ▲회장 인사, ▲2016년도 각 단체 사업실적 보고, ▲2017년도 각 단체 사업계획, ▲감사 보고, ▲2017년도 평단협 주요 일정 보고, ▲담당사제 말씀 및 강복, 이어서 이기헌 베드로 주교 주례로 파견미사를 마친 후 정기총회를 마무리하였다.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살아 있는 과거와의 만남 –동래지역 순교자 문화사적지 순례–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도용희, 담당사제 장재봉, 이하 '부산평협')는 10월 22일 부산교구에서 복자품에 오른 이정식 요한과 양재현 마르티노 순교자의 삶의 터전인 동래지역을 순례하며, 순교자의 삶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읍성순례를 부산평협 주관으로 실시했다. 한국 순교성인 남종삼 요한(1817~1866), 다블뤼 안토니오 주교(1818~1866), 최경환 프란치스코(1805~1839) 등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동래성당에서 출발하여 동래부 동헌, 향교, 충렬사를 경유하여 동래성당에서 마침기도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순례길에는 교구 총대리 손삼석 주교와 선교 사목국장 장재봉 신부, 관할지구 지구장 토현성당 주영돈 신부도 함께했다. 동아대학교 사학과 조숙경 교수의 도움을 받아 해설과 함께 순례를 하였기에 순교복자들의 삶과 지역 문화사적지와의 오묘한 조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었다.

● 부산평협 고문, 자문단 간담회 실시

부산평협은 11월 13일 평신도주일 오후에 2000년 이후 부산평협 회장직을 수행 후 현재 고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섯 명의 전 평협회장과 교구평협의 발전에 공이 큰 자문위원 다섯 명을 초대해 교구 발전과 평신도의 참 삶에 대한 토론과 친교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교구장 황철수 주교, 총대리 손삼석 주교, 부산평협 담당사제 장재봉 신부가 함께하였다.

교구장 황철수 주교는 인사말에서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구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참석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더 이상 평신도가 선교활동에 간접적인 참관자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직접 참여하는 동반 사목자로서의 자리 매김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도용희 토마스 부산평협 회장은 가끔씩 유사한 자리를 마련하여 여러 고문, 자문위원들의 고견을 듣고 교구 발전을 위한 귀한 경청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 군부대 자장면 나눔 행사

부산평협은 평신도주일을 맞이하여 군종후원회(회장 박태선, 담당사제 김기태)와 공동주관으로 11월 13일 지역사단인 육군○○사단 내 하상바오로성당(군종사제 송재현)에서 군장병들을 위한 자장면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교중미사 후 군장 병신자 및 예비신자 훈련병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군장병들은 후원회가 군부대 현지에서 준비한 자장면 식사 후 바나나, 건강음료 등의 간식도 함께 받아갔다.

박태선 회장은 선교의 텃밭인 병영 내의 선교 활성화를 위해 교리교사 양성, 전역 후 본당과의 연계 등의 지원이 진행되기를 희망했다. 부산평협 도용희 회장은 이런 후원회 활동들이 1회성에 그치지 말고 연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되고 교구평협 차원의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원하고 동참하겠다고 했으며 군종사제에게 준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안상덕, 담당사제 황병석 이하 '마산평협')는 9월 23일 교구청 4층 회의실에서 순교자성월을 맞이하여 그분들의 숭고하고 거룩한 영성이 우리의 가슴에 담겨지길 희망하며,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안상덕 회장은 인사말에서 "바쁜 시기에도 교구평협 상임위원회에 많이 참석해 주어 감사하며 앞으로 있을 마산교구 50주년 행사를 비롯해 많은 행사들이 산적해 있지만, 평협인들이 언제나 한마음이 되어 서로 소통하고 늘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전하였다. 주요안건으로는 ▲50주년 감사미사 개최 건, ▲진해왜성 산상미사 건, ▲2016년 평신도주일 특별행사 건, ▲2016년 평신도주일 특별행사 건, ▲11월 한국평협 상임위원회의 건, ▲2017년 사업계획 건을 다루었다.

● 순교자의 딸 유섬이 지구별 순회 특별강연

교구설정50주년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마산교구가 후원하는 순교자의 딸 유섬이의 지구별 순회특강(저자 겸 강사 강희근 요셉)이 9월 22일 거제지구를 시작으로 개최되었다. 이날은 고현성당에서 450여 명의 신자들과 거제지구장 최영철 신부를 비롯하여 교구사목국장 이원태 신부 등 사제와 수도자들이 함께하여 큰 성황을 이루었다. 앞으로 매주 진주(9월

29일), 창원(10월 5일), 마산지구(10월 12일)를 순회하며 개최된다. 아울러 유섬이 희곡집(강희근 저)을 판매하며 책자 판매수익금은 교구설정 50주년 사업비로 쓰게 된다. 또한 2017년에는 마산평협에서 유섬이 연극공연을 준비하여 지구별 순회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 오스트리아 그라츠 자매교구 사절단 방문

마산교구와 자매교구인 오스트리아 그라츠교구에서 빌헬름 교구장 주교를 비롯한 18명의 사절단이 마산교구를 방문하여 9박 10일 동안 마산교구를 비롯한 한국의 성지 등을 순례하였다. 교구 그라츠위원회와 마산평협은 환영미사와 평협 주관의 친교만찬, 교구 내 방문 등을 함께하면서 친교와 우정을 나누는 행복한 일정을 보냈다.

마지막 일정으로 10월 30일 교구설정 50주년 감사미사에 참석하였으며, 오는 2018년 그라츠교구설정 800주년에 마산교구장을 비롯한 교구의 형제들을 공식 초청하기도 하였다.

● 진해웅천왜성 산상미사

11월 5일 웅천왜성에서 마산평협 담당사제 황병석 신부 주례로 최훈 신부와 함께 30여 명의 마산평협 위원 중심으로 조용하게 산상미사를 봉헌하였다. 담당사제 황병석 신부는 강론을 통해, 왜군을 따라 조선 땅에 온 세스페데스 신부의 고뇌와 왜군 치하 속의 조선백성들의 고통과 희생을 기억하며 현재의 사회 환경 속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자고 강론하였다.

● 제49회 평신도주일 잔치

11월 13일 제49회 평신도주일을 맞아서 마산평협에서는 평신도주일을 축하하고 평신도의 사명을 다시 새기는 취지로 교구 내 전 평신도들에게 떡 나누기 행사를 하였다.

이번 떡 나누기 행사는 은인들의 도움을 받아 평신도가 강론만 하고 2차 헌금만 하던 기존 방식과 다르게 우리 스스로 평신도의 날을 기억하고 평신도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였다. 특히 지난 10월 30일 교구설정 50주년 감사미사에서도 마산평협은 우리농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여 감사미사에 참석한 8,500명 전 신자에게도 떡 나누기 운동을 실천하여 평신도의 자긍심과 열정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주교들과 함께하는 도보성지순례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나현식, 담당사제 김정용 신부 이하 '광주평협')는 9월 24일 무안군 몽탄면에서 호남출신 최초의 사제인 이내수 신부 묘역 일원(10.8km)을 걷는 도보성지순례를 개최하였다. 이날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총대리 옥현진 주교, 사제, 수도자, 평신도 950여 명이 참여하여 순교성인의 삶을 본받아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시간으로 순교자현양 미사를 봉헌하였다. 김희중 대주교는 강론을 통해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백견이 불여일행이라는 말처럼 백 번 보고 들어도 한 번 행하니 만 못하다."며 "한국 초기 순교자들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반성해 보고, 굳은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 청하자."고 당부했다.

● 2016 평신도대회

광주평협은 10월 29일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신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는 교구장 사목교서인 '본당의 해'와 교황이 선포한 '자비의 특별희년'의 우수실천사례 공모에서 선정된 4개 본당(효덕동, 봉선동, 학운동, 금호동)의 발표시간을 가졌다. 이어 김유정 신부(대전가톨릭대학교)가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을 주제로 자비의 특별희년을 마무리하는 특강을 하고 파견미사를 봉헌하였다.

● 광주 KCRP 이웃종교 성지탐방

광주평협은 11월 8일, 광주지역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가 주최한 이웃종교 성지탐방에 참여하였다. 4대 종단 53명이 참여한 이날 성지탐방팀은 경북 성주에 위치한 원불교 성지를 방문하여 성지에 대한 소개를 받고 성지 주변을 탐방하였다. 이어 원불교 성지와 인접한 사드 배치 예정지역을 방문하여 현황 청취를 통해 사드 배치 반대운동의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

● 지구별 직무연수 개최

광주평협은 교구 내 14개 지구를 순회하면서 지구별 직무연수를 개최하였다. 본당사목협의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연수회는 올해 본당 활동을 되돌아보고 차기년도 사목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교구장 사목비전'(사목국장 김정용 신부)과 '자비의 희년 실천사례와 방향'(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장 최기원 신부)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또한 평협에서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에 대한 취지와 추진사항 등을 소개하고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다.

●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실천사례 방송

광주평협은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광주가톨릭평화방송의 협조를 얻어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광주가톨릭평화방송이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대림시기를 맞아 프로그램을 개편하였는데, 정규 프로그램 "빛으로 희망으로" 방송이 매일 주요 시간대(월~금요일 아침 8~9시/본방송, 저녁 7~8시/재방송)에 편성되었다. 이 정규 프로그램의 화요일 방송에 "평협과 함께하는 '답게 살겠습니다' 코너"를 마련한 것이다. 이 코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신자들의 실천사례를 발굴하여 매주 방송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소개하고 홍보함과 동시에 많은 평신도들이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전주교구 평단협 회원 1차 연수 및 워크숍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한귀석, 담당사제 김영수 이하 '전주평단협')는 9월 23일, 24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천호피정의 집에서 임원과 제단체장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회원연수 및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김광태 사목국장신부는 특강에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라는 주제로 자비의 희년을 살아가는 평신도의 자세에 대하여 "먼저 자비의 문을 열고 그 문으로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순례하는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원을 되찾아야 하며, 하느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가운데 자비의 육체적 활동과 영적 활동을 실천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지도사제인 김영수 총대리신부는 이번 연수를 통해 서로 연대하며 함께 협력하는 일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며, 복음의 열매 중에 가장 구체적인 형태가 사도직 단체라는 점을 기억하고 여러 형태로 복음을 증명하여 구체적 활동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회원들의 분임별 말씀 나누기를 진행한 후 단체별로 3분 발표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튿날에는 천호성지의 가상칠언(架上七言,주님의 십자가상 일곱 말씀)을 기념하는 순례길을 걸은 후에 천호부활성당에서 자비의 체험과 묵상의 시간을 함께하였다.

워크숍에서는 단체별 소개에 이어 한귀석 회장 주재로 상정안건과 2017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 파견미사를 봉헌하고 행사를 마쳤다.

● 정기총회 및 2차 회원연수

지난 10월 19일 전주평단협은 정기총회 및 회원연수를 개최하였다. 교구에서 운영하는 해성학원의 성심여중에서 100여 명의 회원들이 함께하여 성황을 이룬 가운데, 김영수 총대리신부는 특강에서 '사도직의 영성'을 역설하였다. 이어서 회원들은 분임토의를 통해 강의에 담긴 여러 의미에 대하여 심층적인 의견

을 나눈 데 이어, '자비의 해'를 살아온 나름의 체험을 풍성하게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정기총회에서는 2016년도 활동보고와 2017년도 사업계획, 회칙개정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즐거운 식사와 친교를 끝으로 행사를 마쳤다.

● 복자 유항검의 딸 유섬이 성묘

지난 10월 8일 전주평단협이 주최하고, 신앙문화유산해설사회가 주관하여 복자 유항검의 딸 유섬이의 묘를 참배하여 수도자, 교우 45명이 함께 위령기도를 바치고 묘원미사를 봉헌하였다.

경남 거제군 거제면 내간리 송곡마을 산방산 야트막한 기슭에 '유처자지묘'라는 빗돌이 순교자의 딸 유섬이가 잠들어 있는 곳임을 알려준다.

복자 유항검 아우구스티노가 치명할 당시 9살이던 딸 유섬이는 '16세 이하의 어린이는 죽이지 않는다.'는 대명률에 따라 거제도 관비로 유배되었다. 양반의 자제라는 배려를 받아 어느 노파의 수양딸로 받아들여져 바느질을 배우며, 가장 낮은 처지에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을 간직하고 동정을 지키며 71세에 생을 마감하였다.

김영수 총대리신부는 "천호성지에서 순례객을 맞으며 살다가 이렇게 순례를 하니 새롭다. 순례를 할 때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지향을 가지고 임해야 바람직하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진정성과 영원성을 믿는 것이다."라며 강론했다.

순례참가자들도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행동한 유섬이의 숭고한 삶을 기리고 본받아 백색순교의 각오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하루였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제15대 신임 회장 선출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는 11월 26일 명동 전진상교육관에서 각 교구 이사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충원(라파엘) 현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부산교구 회장을 내년부터 3년간 한국이사회를 이끌어갈 제15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이충원 신임 회장은 "빈첸시안의 일원으로서 소명의식을 지니고 기도와 소망으로 시작하여 감사와 실천으로 열매 맺는 한국빈첸시오를 위하여 봉사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 2016년 제6차 은사학교 '정하상교육관'에서 열어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회장 김현조, 담당사제 김명선)는 지난 9월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간 '정하상 교육회관'(세종시 전의면)에서 '2016년 제6차 은사학교'를 열었다.

전국에서 196명의 성령쇄신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은사학교'는 김현조 협의회장의 소개강의('성령쇄신이 가는 길')를 시작으로, '해방의 기도(박효철 신부)', '성덕에 이르는 길'(김기화 신부), '신령한 언어 은사'(김명선 신부), '성령 안의 전도사'(최봉근 선교사), '성사의 은총'(정광해 신부), '성령의 도유'(의정부교구 회장 두현자) 등 전국 유명 사제와 평신도 강사들의 열강이 교육 참가들을 감동케 했으며 신앙을 재점검하는 시간이었다.

● '전국협' 제5차 담당 사제단 회의 새 대표 담당사제로 김영철 신부 선출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담당 사제단은 지난 11월 28일 협의회 사무실(가톨릭회관 618호)에서 제5차 사제단 회의를 열고 김영철 베드로(의정부교구) 신부를 2년 임기의 새 대표 담당사제로 선출했다.

사제단 회의는 2017년도 전국 대피정을 3월 19일 음성 꽃동네에서 열기로 의결하는 한편 2017년도 세계 성령대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또한 사제단은 지금까지 성령쇄신에서 사용해 온 '구마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해방의 기도'로 바꿔 부르기로 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아멘."이라는 기도문으로 단순하게 정형화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움'으로 되돌아가는 우리의 약속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답게 살겠습니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자기쇄신운동입니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웃도 나처럼 소중하고 사랑받아야 할
대상임을 깨닫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여 가정공동체를 넘어,
교회공동체와 사회공동체로 확산하는 사랑의 선순환 운동입니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계기로 우리 교회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들여다보고 이것을 극복하려는 자기변화운동입니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사회의 아픈 곳을 마주하는 용기, 통렬한 자기반성과 따뜻한 시선으로
'더불어 행복한 생명의 삶'을 추구하는 실천 운동입니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가 펼치고 있는 실천운동입니다.

각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부터 시작하여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사회공동체에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지향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https://goo.gl/DEoioe

Editor's Letter

"우리는 신앙의 세월이 쌓여갈수록 교리 지식과 전례에는 점점 익숙해져 간다.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교적 삶의 방식을 살아내는 데는 진전이 없거나 더딘 것이 아닌지 늘 경계하고 성찰하면서 신앙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성찰과 공부, 그리스도교적 삶의 방식을 살아내는 것이 참 영성이 아닐까. 성찰적 신앙과 깨어 있는 신앙인들만이 교회의 변화와 쇄신을 조금씩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호에 실은 정희완 신부의 글 가운데 한 구절을 새기며, 구상 세례자 요한 시인의 시 "성탄을 일흔 번도 넘게"를 읊조려 봅니다. 여러분은 몇 번째 성탄을 맞이하십니까? 이번 성탄이 우리 모두가 거듭나는 기쁜 명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일흔 번도 넘게 맞이하고도
나의 안에는 권능의 천주만을 모시고 있어
저 베들레헴 말구유로 오신
그 무한한 당신의 사랑 앞에
양을 치던 목동들처럼
순수한 환희로 조배할 줄 모르옵네.

성탄을 일흔 번도 넘게 맞이하고도
나의 안에는 허영의 마귀들이 들끓고 있어
'지극히 높은 데서는 천주께 영광,
땅에서는 마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평화'
그날 밤 천사들의 영원한 찬미와 축복에
귀먹어 지내고 있습네.

성탄을 일흔 번도 넘게 맞이하고도
나의 안에는 안일의 짐승만이 살고 있어
헤로데 폭정 속, 세상에 오셔
십자가로 당신을 완성하신
그 고난의 생애엔 외면하고
부활만을 탐내 바라고 있습네.

성탄을 일흔 번도 넘게 맞이하여도
나 자신 거듭나지 않고선
누릴 수 없는 명절이여!

편집장 배봉한 세례자 요한 올림

교구평협, 회원단체 소속 **평신도 명예기자**를 모집합니다.

한국평협에서는 계간 '평신도'와 함께할 명예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평협과 회원단체별로 한 명의 명예기자를 선정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기자는 앞으로 '평신도' 발간과 관련 각 교구와 단체의 소식과 관련 사진자료 등을 정리해서 한국평협 사무국 ☎ 02)777-2013, FAX 778-7427, 전자우편 clak@catholic.or.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명예기자는 아름다운 자원봉사활동입니다.

명예기자 명단(2016년 12월 현재)

소속	이름	세례명	이메일 주소
서울평협	이새록	비비안나	clas@clas.or.kr
춘천평협	유효현	알렉산델	hyohyeon7013@daum.net
대전평단협	윤정분	아녜스	tjclass@hanmail.net
인천평협	유병수	멜키올	mk00204@hanmail.net
수원평협	서덕희	미카엘라	pyonghyop@casuwon.or.kr
원주평협	백정현	임마누엘	wonju@pbc.co.kr
대구평단협	이영구	실베스텔	mecouple@hanmail.net
부산평협	전영주	바오로	libys@hanmail.net
청주평협	이상철	방지거	howareyoulee@naver.com
마산평협	최명숙	안젤라	clacms@hanmail.net
광주평협	정춘자	로사	jlosa1208@hanmail.net
의정부평협	최태용	레오	choy1902@hanmail.net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	손세공	비오	eldison@naver.com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한경숙	마리안나	kshan628@nate.com
한국가톨릭병원협회	강영숙	마리아 막달레나	magdalena57@hanmail.net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문호	토마스	younamedia@hanmil.net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황웅진	헨리코	pravda89@naver.comm
M.B.W. 한국 공동체 추진 봉사회 회장	송애련	젬마	ae4789@hanmail.net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이익태	마르코	7romeo@naver.com

공지 사항

평신도 원고모집

한국평협이 개편 발행하는 계간 '평신도'는 교회 내 각종 정보와 각 교구평협과 회원단체들의 소식으로 엮는 종합정보지입니다. '평신도'에서는 열린마당 코너의 생활수필에 관심 있는 독자 여러분의 글을 모집합니다. 원고의 양은 200자 원고지 10매입니다. 원고가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